

WORLD, HAUS OF MATTERS

— APRIL

#9

Recently Released

Kid Cudi - INSANO (NITRO MEGA)
Ghetts - On Purpose, With Purpose
Ariana Grande - eternal sunshine
Kenny Mason - 9
Bktherula - LVL5 P2
Chief Keef & Mike Will Made It - Dirty Nachos
Tyla - TYLA
Nourished by Time - Catching Chickens

Full-Length Album Review

ScHoolboy Q - BLUE LIPS
MIKE & Tony Seltzer - Pinball
Kim Gordon - The Collective

Classic Album Review

ScHoolboy Q - Oxymoron
Jurassic 5 - Quality Control
Madvillain - Madvillainy / Freddie Gibbs & Madlib - Pinata

Featured

1994 #2

Playboi Carti를 만든 인물들
[앨범 커버 뜯어보기](#)

Editors' Picks

Alfa Mist - Structuralism

samIrc - A Lonely Sinner

Elton John - Goodbye Yellow Brick Roda

Jason Mraz - Mr. A-Z

Björk - Post

BLACKSTARKIDS - CYBERKISS*

Kid Cudi - <INSANO (NITRO MEGA)>



2024.02.23

Kid Cudi(키드 커디)가 고작 1달이라는 짧은 공백기를 깨고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다.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품을 내주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작품성은 전작과 비교해 보아도 나아진 부분이 전혀 없다. 전작 <INSANO>의 단조롭지 못한 구성, 창의적이지 않은 샘플링과 지루한 프로덕션 등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온 <INSANO (NITRO MEGA)>는 역시나 그저 그렇고, 지루한 트랙들의 집약으로 느껴진다. 수록곡들의 퀄리티는 전작보다는 조금 높은 고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껏 발매해온 노래들 중 가장 아쉬운 퀄리티의 곡들 또한 존재한다. "HUMAN MADE", "DOSE OF DOPENESS", "SUPERBOY"를 비롯해 탄탄한 구성의 좋은 트랙들이 있는 반면, Chip Tha Ripper와 함께한 "WILLIS"나 Steve Aoki가 프로듀싱 한 "ELECTROWAVEBABY 2.0"가 의심의 여지 없이 키드 커디의 최악의 노래이다. 키드 커디에게서 더 이상의 과거의 영광은 떠오르지 않으며, 이제는 저물어가는 태양이 되어버린 듯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TRACKS

1. HUMAN MADE / 2. DIAMONDS LIGHTS FAST CARS (feat. Wiz Khalifa) / 3. WIN OR LOSE (feat. Chip tha Ripper) / 4. CHUNKY / 5. BABE AND I / 6. WILLIS (feat. Chip tha Ripper) / 7. CRASH TEST CUDI / 8. EVERYBODY LIKE (feat. Pusha T) / 9. ELECTROWAVEBABY 2.0 / 10. ANIMATE (feat. Chip tha Ripper) / 11. ROUND N ROUND (feat. Lil Yachty) / 12. DOSE OF DOPENESS (2007) / 13. ROCKET (2011) / 14. ILL WHAT I BLEED / 15. ALL MY LIFE / 16. I JUST WANNA GET (feat. Layzie Bone, Krayzie Bone & Steve Aoki) / 17. MOON MAN SHIT / 18. SUPERBOY

by Editor 자카

RECENTLY RELEASED

Ghetts - <On Purpose, With Purpose>

2024.02.23

<Conflict Of Interests>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게츠(Ghetts)가 세상에 던지는 날카로운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 <On Purpose, With Purpose>에서 게츠가 보여준 리릭시즘은 그의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가장 훌륭한 축에 속한다. 그렇다고 본작이 그저 가사만 훌륭한 작품은 또 아니다. 게츠 최고의 앨범이라 칭해도 될 만큼 퀄리티 또한 매우 빼어나다. Sampha의 아름다운 보컬이 돋보이는 "Double Standards"는 명실상부 올해 최고의 트랙 중 하나이며, "Hallelujah"는 굉장히 캐치하고 매력적이다. 물론 "Tumbi"와 "Blessings"에서의 실험적인 모습도 돋보인다. 피처링들의 활용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다. 앞서 언급한 Sampha를 비롯하여 Pip Millett의 깔끔한 래핑, Tiggs Da Author의 호소력 짙은 벌스 등 많은 피처링 아티스트들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 또한 없지 않았다. 게츠나 피처링 아티스트들의 래핑은 다소 비트와 잘 맞물리지 못한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아프로비트 스타일을 사용한 트랙들 대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On Purpose, With Purpose>는 여전히 훌륭한 작품이다. 이 정도면 게츠 또한 최고의 영국 힙합 아티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아도 좋지 않을까, 확실한 것은 본작은 올해 최고의 영국 힙합 레코드 중 하나라는 것이다.

TRACKS

1. Intro / 2. Mount Rushmore (feat. Kano & Wretch 32) / 3. Double Standards (feat. Sampha) / 4. Anakin (Red Saber) / 5. Blood On My Hands (feat. Unknown T) / 6. Stylish Nxxxa (feat. Lancey Foux) / 7. Laps (feat. Moonchild Sanelly) / 8. Twin Sisters (feat. Skrapz) / 9. Mine (feat. Shakka) / 10. More Than I Required (feat. Jay Angelo) [Interlude] / 11. Hallelujah (feat. Dexta Daps) / 12. Gbedu (feat. Harry Aye) / 13. Tumbi / 14. Blessings (feat. Muzi) / 15. Grateful (Interlude) / 16. Street Politics (feat. Tiggs Da Author) / 17. Jonah's Safety (feat. Pip Millet) / 18. Expiry Date (Outro)

by Editor 자카

Ariana Grande - <eternal sunshine>

2024.03.08



TRACKS

1. intro (end of the world) / 2. bye / 3. don't wanna break up again / 4. Saturn Returns Interlude / 5. eternal sunshine / 6. supernatural / 7. true story / 8. the boy is mine / 9. yes, and? / 10. we can't be friends (wait for your love) / 11. i wish i hated you / 12. imperfect for you / 13. ordinary things (feat. Nonna)

자신의 머릿속에서 연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치료를 받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해준 영화 <이터널 선샤인>. 이에 영감을 받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는 본인의 7집 <eternal sunshine>을 통해 만남과 이별을 거치며 성숙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 <Wicked> 개봉 전까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그녀였지만, '토성 주기'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3개월 만에 앨범 작업을 마치고 세상에 발표하기에 이른다. <Sweetener>, <thank u, next>에 이어 다시금 호흡을 맞춘 두 프로듀서 Max Martin, Ilya Salmanzadeh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이제는 아리아나 그란데 스타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지 리스닝 앨앤비 음반이 만들어졌다. 불륜 루머를 반박하는 "yes, and?"와 팬들을 향해 외치는 듯한 "we can't be friends"를 제외하면, 미니멀한 트랩 사운드 위에서 아리아나의 깔끔한 음색에 집중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두 선공개곡이 앨범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트랩 소울 특유의 자가 복제를 탈피하고 무드를 전환하는 대중음악으로서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대중에게 비춰지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진실로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eternal sunshine> 속 화자인 그녀의 사랑은 충분히 그려하다.

by Editor 공ZA

RECENTLY RELEASED

Kenny Mason - <9>

2024.03.14



힙합과 하드 록 사운드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케니 메이슨(Kenny Mason). 근 몇 년간 그의 행보는 꽤나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물론, 피처링으로 참여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 명확히 드러내곤 하였다. 그런 그가 3번째 정규 앨범 <9>로 돌아왔다. 어느 정도 체급이 커진 상태임에 따라, 대중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작들에 비해 <9>는 그다지 훌륭한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전작들과 달리, <9>의 몇몇 트랙들은 다소 개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FEEL IT"와 "4 MY"의 비트는 무미건조한 전형적인 트랩 비트였으며, 래핑까지 뻔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그 반대로 개성이 너무나도 과하게 훌려넘쳤던 트랙들 또한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BabyDrill이 힘을 보탠 "EASY DUB"은 꽤나 훌륭한 비트의 트랩 넘버이지만, 정작 래핑 퍼포먼스는 너무나도 부실하다. 케니 메이슨만의 특별한 스타일을 담아내려고 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은 트랙이었다. 그의 장점을 제대로 담은 캐치하고 훌륭한 트랙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나, 앨범의 구성은 다소 난잡하며 특히 지루하다는 단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케니 메이슨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이다. 본작에서도 흥미로운 순간들이 여럿 존재하였고, 무엇보다도 현 시점 가장 떠오르는 유망주이니 말이다. 이 아티스트의 위치는 그의 다음 앨범으로 결정될 것이라 감히 추측해 본다.

TRACKS

1. JUMPIN IN / 2. EASY DUB (feat. BabyDrill) / 3. FEEL IT / 4. 4 MY (feat. Veeze) / 5. MONEY SIGNS / 6. US / 7. SLIP (feat. Toro Y Moi) / 8. CHOSEN / 9. LUMINOUS

by Editor 자카

Bktherula - <LVL5 P2>

2024.03.15



TRACKS

1. CODE / 2. NUN / 3. TATTI / 4. BOI / 5. SHAKIN IT (feat. Cash Cobain) / 6. JUST MAKE SURE / 7. WISHUWASACREW / 8. INSANE / 9. CRAYON / 10. WOMAN (feat. JID) / 11. FEATHERS / 12. THE WAY / 13. RACKS UP

Bktherula는 레이지와 플러그를 주 장르로 삼는 여성 래퍼인 동시에, 자신이 5차원 세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매우 희귀한 포지션을 고수하는 아티스트이다. Bktherula는 3차원과 4차원의 위에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바로 그 세계에 '5차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LVL5> 시리즈는 그런 5차원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끝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5차원의 세계를 그려낸 <LVL5>의 두 번째 파트에서, Bktherula는 그간 자신이 주 무대로 삼았던 따가운 신스의 레이지 사운드와 플러그를 벗어나 더욱 듣기 편하고 친숙한 형태로 위 장르들을 담아내는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초반부의 "CODE"와 "TATTI"를 제외한 모든 트랙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그녀가 이런 형태의 음악들을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아티스트는 아녔기에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앰비언트 팝, 얼터너티브 R&B, 드림 팝 등 여러 장르의 요소를 가져와 녹여내는 과정 중 가장 특출났던 순간은 "SHAKIN IT"이었다. 해당 장르의 스페셜리스트인 Cash Cobain을 초빙해, 빛어낸 신스를 이용한 드림 팝 혹은 플러그의 사운드를 샘플드릴과 섞어낸 선택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어색하지 않았던 선택"은 앨범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사건으로, 안정적인 만큼이나 Bktherula 개인의 매력은 비교적 덜 돋보였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레이지와 플러그를 벗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레이지 씬의 다양화를 위해서 Bktherula 역시 중요한 존재인 셈이다.

by Editor SongChico

RECENTLY RELEASED

Chief Keef & Mike WiLL Made It

- <Dirty Nachos>

2024.03.15



TRACKS

1. INTRO / 2. 2 TIMES / 3. DIRTY NACHOS / 4. DOJA / 5. RIDICULOUSNESS (feat. Ballout) / 6. PULL UP GHOST-CLAN (feat. 2 Chainz) / 7. DAMN SHORTY (feat. Sexy Red) / 8. WHY YOU MAD / 9. WATCH FOR THE PIGS / 10. CHARGED UP / 11. PROMENADE / 12. BEWARE OF DOGS / 13. GIRL WOO / 14. PLAYER IN ME / 15. LOVE DON'T LIVE HERE / 16. STATUS / 17. HARLEY QUINN / 18. BANG BANG

치프키프 (Chief Keef)가 <Almighty So 2>를 예고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 그가 마이크 월 메이드 잇 (Mike WiLL Made-It)과 손을 잡고 믹스테이프를 발매했다. 재생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본작의 목표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2010년대 초반 믹스테이프 문화를 상징하는 DJ Trap-A-Holic를 호스트로 등장시키며 그 악명을 널리 떨쳤던 "2012년 치프키프"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는 클럽을 열광시킬 뱅어로 앨범을 가득 채우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반부터 고개를 흔들게 만드는 뱅어의 나열이 이어지며, 이들의 바람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2 Chainz가 참여한 "PULL UP GHOST-CLAN", Sexy Red가 참여한 "DAMN SHORTY"까지는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치프키프 식의 시카고 드릴이 아닌 전형적인 마이크 월 메이드 잇 식 트랩 사운드가 주를 이룬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위 트랙들은 매우 강렬했던 초중반까지의 트랙들과 대비되어 더욱 처진다는 감상을 주고야 말았다. <DIRTY NACHOS>는 장단점이 명확한 앨범이다. 공격적인 사운드에서 치프키프는 여지없이 최고의 품을 보여주었지만 그 외에 현재의 트랩 사운드 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의문부호를 남겼고, 궁극적으로 마이크 월 메이드 잇과의 합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위안을 삼자면, 그의 차기작은 두 스타일 중 전자에 가까운 <Almighty So 2>가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by Editor SongChico

Tyla - <TYLA>



2024.03.22

남아공 출신 타일라(Tyla)의 셀프 타이틀 앨범이자 정규 데뷔 앨범 <Tyla>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아프로피아노(Afropiano)라는 한 장르의 설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아프로피아노는 서아프리카의 아프로비트와 남아공의 아마피아노가 각각 결합한 형태로 이뤄진 장르다. 쉽게 말해서, 댄스홀의 서아프리카식 해석과 딥 하우스의 남아공식 해석이 각각 만나면서 형성된 장르가 바로 아프로피아노이다. 그리고 갓 태어난 장르인 아프로피아노 무대 위, 현대적인 알앤비 스타일로 등장한 작품이 바로 <Tyla>가 되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글로벌 아프리카 팝스타'가 되고 싶었던 야망은 천천히 구현되어 갔다. <Tyla>의 선공개 곡 "Water"가 보여준 컬쳐적 인기가 바로 그러한 본보기로서, 아프로피아노 비트와 알앤비 팝의 요소를 엮어낸 음악은 중독적인 짬의 성공 사례로 거듭났다. 물론 "Water"의 성공에 힘입은 <Tyla> 역시도 뚜렷한 자신감에 비춘 장르의 웅집력을 갖춘 작품이 되었다. 대중에게 있어 익숙한 R&B 팝의 선율과 낯선 아프로 팝의 조화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자 꽤나 성공적인 시도로 보인다. 다만 그 색채가 팝의 선율에 가까워졌기에, 새로운 장르의 호기로움보다는 익숙한 맛에 미약한 변형을 준 감상이라 아쉽다. 아프로피아노 본연의 색은 침잠하며, 알앤비의 색채가 강했던 것이 문제였을까? 물론 먹기 좋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라는 점은 변함없으나, 본연의 자극적인 맛을 기대했던 청자에게는 아쉬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앨범의 퀄리티가 탁월치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훌륭한 아프로 팝 스타의 탄생이라는 점은 증명해냈다. <Tyla>는 즉각적인 에너지와 나름의 독창성으로,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무대의 포문을 열어준 훌륭한 작품이다.

TRACKS

1. Intro / 2. Safer / 3. Water / 4. Truth or Dare / 5. No. 1 (feat. Tems) / 6. Breathe Me / 7. Butterflies / 8. On and On / 9. Jump / 10. ART / 11. On My Body / 12. Priorities / 13. To Last / 14. Water (Remix)

by Editor 앞날

RECENTLY RELEASED

Nourished by Time

- <Catching Chickens>

2024.03.22

시간에 농익은 아티스트 마커스 브라운(Marcus Brown), 일명 놀리쉬드 바이 타임(Nourished by Time)은 어떤 아티스트인가. 그는 과거의 오디오 상자 속을 탐방하지만, 유산을 답습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자신만의 오디오 상자를 꾸릴 줄 아는 아티스트. 그는 그러한 아티스트가 아닐까. 일례로 그는 <Erotic Probiotic 2>에서 중후한 바리톤 목소리, 80년대 신스 팝, R&B의 창법을 배합하여 독자적인 색감의 음악을 만들어 낸 바가 있다. 그리고 이번 EP <Catching Chickens>는 전작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지언정, 여전한 완성도로 일궈내었다. '닭잡기'라는, 의문을 유발하는 앨범 제목은 영화 <Rocky>의 닭을 이용한 민첩성 테스트 장면에서 따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Catching Chickens> 역시 세상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방식을 음악으로 테스트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험난한 세상살이의 일기를 기록하고자, 마커스는 본작 내에서 도 과거의 방식을 참조하여 현대적인 감성을 재현해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80년대의 신스 위로 앨범의 진한 흡입력과 유연하고도 굵직한 보컬의 움직임은 더욱 생동하게 느껴지니 어떤가. 중독성 있는 보컬과 코러스, 개인의 혼돈을 독특한 가사로 담은 서사까지 본작은 20분 남짓의 짧은 EP 분량임에도 본인의 정수를 최대한 뽑아낸 작품으로 느껴지니 어떤가. 하나의 정제된 EP는 관습과 비전통의 줄기를 묘하게 나눠놨으니, 청자에겐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이 될 것이다.

TRACKS

1. Hell of a Ride / 2. Hand On Me / 3. Poison-Soaked / 4. Had Ya Called / 5. Romance In Me

by Editor 앞날

ScHoolboy Q

BLUE LIPS

- 01 Funny Guy
- 02 Pop (feat. Rico Nasty)
- 03 THank god 4 me
- 04 Blueslides
- 05 Yeern 101
- 06 Love Birds (feat. Devin Malik & Lance Skiiwalker)
- 07 Movie (feat. Az Chike)
- 08 Cooties
- 09 oHio (feat. Freddie Gibbs)
- 10 Foux (feat. Ab-Soul)
- 11 First
- 12 Nunu
- 13 Back n Love (feat. Devin Malik)
- 14 Lost Times (feat. Jozzy)
- 15 Germany 86'
- 16 Time killers
- 17 Pig feet (feat. Childish Major)
- 18 Smile

by Editor 온암

그 누구도 쉽사리 체감하지 못할 만큼 지난 5년은 유독 빠르게 흘렀다. 스쿨보이 큐(ScHoolboy Q)의 귀환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그를 여전히 10년 전 <Oxymoron>의 거침 없는 갱스터 래퍼로 기억하고 있었는가? 혹은 좀 더 진한 <Blank Face LP>의 중후함을 기대했는가? <Crash Talk>이 남긴 아쉬움을 타파할 수 있기를 바랬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BLUE LIPS>라는 작품이 이런 모습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푸른 입술의 구강을 비춘 커버 만큼이나 <BLUE LIPS>의 전경은 다소 당혹스럽다. 다만 그것이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들에게 그러했듯이, 당신에게도 보다 좋은 푸른빛의 기억으로 남기를 희망할 뿐이다.

전작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플레이어로서 큐가 가진 재능은 여전하다. 독보적인 탄력의 발성과 지저분하게 느껴질 만큼 감각적인 플로우, 잠적의 세월은 스쿨보이 큐의 장점을 단 한 틀도 훼손하지 못했다. 정통 갱스터리즘을 기반으로 라임을 전개하는 그는 불필요하게 수사적이지 않다. 표현은 여전히 칙설적이고, 문장 단서를 배치하는 방식은 해체주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느 시간대의 현실을 막론하고 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온존하는 특유의 태도 또한 여전하다. 그러나 스쿨보이 큐의 실력이 건재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큐 본인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막강한 정체성의 캐릭터마저도 잠시 사색에 젖게 할 정도로. 그의 심정마저도.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 <Crash Talk>의 모호한 성과, TDE의 개편까지 스쿨보이 큐의 환경은 점진적으로 격변해갔다. 그가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불쾌하게 말이다. 오랜 시간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고선 다시 돌아온 그가 채택한 작업 방식은 훨씬 독립적이었다. 레이블의 지시와 상업적 성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음주와 약물의 유혹에서 탈출하며, 그는 온전히 앨범의 주도권을 쥐었다. 보다 선명한 정신을 바탕으로 큐는 그의 과거를 천천히 회상할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을 음악적으로 정교히 구조화할 수 있게 되었다. 표면적인 인상으로 큐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서도 가장 난잡한 <BLUE LIPS>의 전개는 사실 가장 철저히 연출된 결과물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에 앞서 표명한다.

<Crash Talk>은 과거작들에 대한 답습과 반쪽짜리의 시도로 주조된 앨범이었다. 결코 실패작의 축에 포함될 만큼 열등한 작품은 아니었으나, 언제나 씬의 평균을 아득히 넘었던 스쿨보이 큐의 복귀작으로서는 분명 아쉬운 작품이었다. 크게 인상적이지 못한 트랩 비트의 반복과 형식적인 사이키델릭, 호화로움 이외에 큰 인상을 주지 못한 빅네임들의 피쳐링. 이를 대신 큐가 신작에서 택한 해결책은 재즈와 드럼리스였다. 2020년대 들어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장르적 정통성과 메인스트림 힙합의 한계를 타파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드럼리스 힙합이 이제 서서히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스쿨보이 큐는 이를 현 시류와 전혀 다른, 꽤나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했다.



Better climb out of that hole before you fuck up your blessings
'Fore you realize that it's over with and start to get desperate
Keep your mind, body on pressure, give your time when it's needed
Know a man gon' be a man, if he don't work, he ain't eatin'
-ScHoolboy Q, Blueslides 中

앨범의 선공개 싱글이었던 "Blueslides"에 주목하라. Lauren Santi의 보컬과 함께 향수적인 재즈 피아노와 현악 연주는 그리젤다 타입의 드럼리스 힙합 범람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선율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요컨대, 우리가 그동안 이런 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이나 했는가? 그가 10년 전부터 오늘날의 "Lost Times"까지 The Alchemist와 꾸준히 협업했다 한들, 이러한 종류의 서정성을 스쿨보이 큐에게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분명 번지수 오류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Kendrick Lamar가 소시민의 삶을 택해 영웅승배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Danny Brown이 무력감과 회한에 젖었던 것처럼, 때로는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허나 "Blueslides"는 <BLUE LIPS> 전체를 상징하지 않는다. 스쿨보이 큐의 커리어에서 어느 하나의 곡으로 정의되는 앨범은 쉽게 찾을 수 없다지만, 총 11번의 비트 체인지를 포함하고도 곡마다 톤이 상이한 <BLUE LIPS>의 경우 특히나 종잡기 어렵다. 팝 평크 사운드를 앞세운 "Pop", 무자비한 킥 드럼과 베이스가 인상적인 "Yeern", 중독적인 훅으로 옛날의 큐를 소환하는 "Back n Love" 등 기존의 하드코어한 스쿨보이 큐를 찾을 수 있다면, "Druggys wit Hoes"의 훅을 이식하며 <Setbacks> 시절 Ab-Soul과의 듀오를 소환한 "Foux", 독일에서의 유년기를 담아낸 "Germany 86" 등 재즈와 블루스, 블루스와 힙합의 컨셔스한 스쿨보이 큐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LUE LIPS>라는 앨범의 축소판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면, "Thank god 4 me"와 "oHio"만큼이나 적법한 곡은 없는 듯하다. 각각 Julius Brockington의 "Forty-Nine Reasons"와 David T. Walker의 "The Windows of the World"에 기반하며 본작을 상징하는 음향적 양면을 담아낸 두 곡은 인상적인 비트 체인지 연출과 그를 포괄하는 큐의 랩 역량으로 앨범에서 가장 인상적인 트랙으로 남았다. 당연하게도, 드럼리스 비트는 기성 힙합 비트에 비해 평온하고 선율적이다. 때문에 평범한 808 베이스와 드럼셋의 조화만으로도 곡 전반 분위기의 전환 효과가 극대화되는, 영리한 전략의 힘인 것이다. 특히나 "oHio"는 "Foux"와 대비되어 작가 스쿨보이 큐의 시점이 과거 회상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Freddie Gibbs의 지원으로 그 무게감을 더한다.



"oHio"와 "Foux"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면, 아마 <BLUE LIPS> 전체가 거울형의 대립쌍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뉴 클래식으로 평가받는 J.I.D의 <The Forever Story> 등, 다수의 작품이 택한 바 있는 이 독특한 구조는 트랙 간의 사운드와 컨셉을 일치시키거나 대조시킨다. 스쿨보이 큐는 <BLUE LIPS>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대립쌍 구조로 그의 메시지가 음반 전반에 걸쳐 형식화될 수 있도록 의도했다. 재즈와 소울 샘플링이 곳곳에 산개한 가운데, 큐는 자신의 역량으로 앨범의 역동성을 통제하며 상징적인 메타포를 그려나갔다. 때문에 큐의 저의를 알 수 있는 단서는 그의 가사 자체라기보다도, 그 라임들이 형성한 서사 패턴과 그를 나열한 앨범 구성의 파악이다.

어찌 보면 <BLUE LIPS>는 이전 스쿨보이 큐의 정수라는 평을 들었던 <Blank Face LP>와 여러모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앨범 커버의 색상과 피사체 본인을 조명한 방식, 앨범의 통일성과 진행 방식, 톤앤매너까지도 상이하기 그지 없다. 때문에 <BLUE LIPS>를 파악할 때, 청자들은 본작을 기준 스쿨보이 큐의 이미지와 가장 멀다고 자칫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큐는 지금껏 앨범 구성에 있어 언제나 혼돈을 자청했으며, 갱스터로서 본인의 진모를 스스럼없이 토해냈다. 그랬던 그가 지금에 이르러 음악적으로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가장 직설적인 날말들만을 운운한 작품을 제작했다면, 과연 이것이야말로 아티스트의 본질을 담아냈다며 찬사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계점이 없다거나 음악적으로 특별히 걸출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BLUE LIPS>는, 스쿨보이 큐만의 방식으로, 가장 스쿨보이 큐다운 앨범이다.

P.S.

"Lost a homeboy to the drugs, man, I ain't tryna go backwards." 조롱받던 <Blue Slide Park>의 주인은 이제 명예롭게 추모된다. 당신은 사랑받던 만큼 사랑받고 있으니, 부디 의심을 거두길. Rest In Peace.



SCHOOLBOY Q

Full Length Album Review

1. Two Door
2. Lethal Weapon
3. 100 Gecs
4. On God
(feat. Earl Sweatshirt
& Tony Shhnow)
5. Skurr
6. Underground Kingz
7. Yin-Yang
8. R&B
9. Reminiscing
(feat. Jay Critch)
10. Pinball
11. 2k24 Tour
(feat. Niontay)

MIKE & Tony Seltzer



Pinball

2015년 자신의 밴드캠프 페이지를 통해 커리어를 시작한 뉴욕 출신의 래퍼 마이크(MIKE). 여러 걸출한 작품들로 평론지들과 리스너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떠오르는 앱스트랙 힙합 씬의 신예이다. 또한 프로듀서 토니 셀처(Tony Seltzer)는 2017년의 첫 비트 테이프 <Remember the Memories>를 시작으로, Wiki, A Lau 등의 아티스들과 협업하며 씬에서 입지를 굳힌 아티스트이다. 마이크의 음악이 소울 음악을 샘플링한 비트 위에서 투박하고도 정교한 래핑을 내뱉는 것이라면, 토니 셀처의 프로듀싱은 트랩의 색깔이 짙다. 그렇기에 이 둘의 협업 앨범 <Pinball>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전혀 어색하지거나 걸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Pinball>은 마이크의 전작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작품이다. 그의 이전 작품들이 비정형적인 드럼과 피치 다운된 재즈 샘플을 사용해 어두운 로맨스와 코미디적인 모습을 내뿜었다면, 본작에서는 재즈 요소나 실험적인 면모를 찾을 수 없다. 앱스트랙 힙합 아티스트 마이크가 트랩과 플러그 장르의 비트 위에서 래핑을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고, 상상한다 하더라도 과연 좋게 들릴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는 토니 셀처의 플러그 비트 위 자신의 목소리와 래핑이 어우러지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마이크의 리릭시즘이 한층 더 가벼워졌지만, "R&B"를 비롯한 트랙에서 여전히 그의 성찰적이고 작가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의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토니 셀처의 프로듀싱 또한 상당히 훌륭하다. 본인의 역량을 아낌없이 내뿜은 <Pinball>은 그가 지금껏 프로듀싱 해온 작품들 중에서도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Two Door"에서의 음산한 분위기, "Lethal Weapon"의 통통 튀는 하이햇 사운드, "2k24 Tour"의 샘플링으로 다져진 웅장한 사운드 등에서 드러난다. 토니 셀처의 섬세한 샘플링과 드럼은 앨범 전체에 걸쳐 일관된 툰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수단을 사용해 각각의 곡에 색다른 개성을 부여한다. 마이크의 래핑이 이번 앨범에서 더욱 돋보이는 이유에 토니 셀처의 프로듀싱을 배제할 순 없다.

고작 21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진 <Pinball>은 다소 임팩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아쉬움 또한 남는다. 수록곡들은 마이크의 이전 작품과 꽤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20 트랙에 달하던 전작들과는 달리 고작 11트랙이라는 아주 간소한 분량을 자랑하는 <Pinball>을 다 듣고 나면 "이렇게 끝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물론 앨범 전반이 퀄링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앨범이지만, 본작에서 보여준 가벼운 모습의 마이크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 가벼운 모습의 마이크는 <Pinball>로 충분하니, 추후 발매할 다른 작품들에서는 더욱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마이크와 토니 셀처가 지향하는 음악의 방향은 다소 상이하지만, 각각은 그 누구의 것보다도 매력적이다. 이미 마이크의 2017년 작품, <May God Bless Your Hustle>에서 2차례 호흡을 맞춰본 둘이지만, <Pinball>의 스타일은 다르다. 그저 너무나도 새롭다. 마이크의 트랩 앨범과 이를 실현시키는 토니 셀처의 프로듀싱. 앨범 자체의 매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야말로 너무나도 신선한 앨범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내릴 수 있겠다. 마이크와 토니 셀처, 두 언더그라운드의 왕은 어느새 힙합씬에서 가장 반짝이는 신예가 되었다. 과연 이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둘의 움직임은 분명 지켜볼 필요가 있다.

by Editor 자카

MIKE & Tony Seltzer



KIM GORDON

TRACKS

- 01. BYE BYE
- 02. The Candy House
- 03. I'm A Man
- 05. Trophies
- 06. It's Dark Inside
- 07. Psychedelic Orgasm
- 08. Tree House
- 09. Shelf Warmer
- 10. The Believers
- 11. Dream Dollar

2024.03.08

by Editor 예리



THE COLLECTIVE

Full Length Album Review

감정을 다치는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무면허 주치의를 둔다. 그중 일부는 소설 미디어의 짧은 글귀 혹은 캐치프레이즈의 명언의 뜻이 되고, 일부는 세계에 공유되어 좋아요를 받는 매력적인 섹슈얼리티나 아기자기한 이종(異種) 생명체가 대신하기도 하며, 관심사를 나누는 웹 사이트 커뮤니티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가교를 잇는 거점은 모든 국제 정보 교환의 광장인 인터넷이다. 바퀴, 금속활자, 전구보다도 위대한 발명품으로 송상되곤 하는 이 비접촉 통신망의 파급력은 논쟁의 규모를 벗어나 의심할 수 없는 입지까지 확립해냈다.

하지만 중독과 의존을 전면에 내건 비판적 칼럼과 뉴스의 범람이 증명하듯, 이 혁신 기술의 등장이 범지구적 현대 인류의 복합적 고립을 탄생시켰다. 과잉 정보의 방대한 바다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갇혀버리는 현상, 그리고 더 세세하고 더 특징적인 이들끼리 뭉쳐 요새를 짓고 소속을 빙자한 구속에 자신을 의탁하며 격리시키는 악순환. 어느덧 개인주의는 정론을 넘어 필수 교양이 되었다. 그런 현세대의 인류에게 구김살 없는 인구가 멸종에 다다르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별다른 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리모로 썩 내기지 않는 현실이다.

"당신도 중독되었을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Loud And Quiet*과의 인터뷰에서 Kim Gordon은 트위터에 빠진 본인의 경험을 돌아보며 *<The Collective>*의 포문을 연다. "저는 현재 제 주변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광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진실에 개의치 않고 설득당하지 않으며, 각자의 이면을 품고 편집증을 만들어내는 때입니다(후략)." - 밴드캠프에 작성한 Gordon의 *<The Collective>* 소개 문구.

Gordon은 이번에도 다른 작품을 통해 구상한 설계도를 실체화시킨다. 2019년에 발매한 솔로 1집 *<No Home Record>*가 Chantal Akerman의 유작 필름 *No Home Movie*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The Collective>*는 Jennifer Egan의 SF 소설 *The Candy House*와 세계관 속 기억 장치 *Collective*로부터 출발했다. 해당 소설은 기억 공유 기술이 등장한 미래 사회에서 벌어지는 윤리적 갈등을 소재로 다루며, Gordon은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알고리즘 기술을 이에 비교한다. 불건전한 소속감의 종용으로 나타난 과시적·배타적 문화의 확산을 언급하며 픽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설 미디어의 현주소를 꼬집는다.



이를 주제로 본격적인 앨범을 발매하기에 앞서, Gordon은 지난 2023년 7월 뉴욕 303 갤러리에 <The Collective>와 동명의 시각 작품을 전시하며 본작의 발매를 간접적으로 예고했다. 프리퀄에 준하는 해당 작품은 너른 세상을 암시하는 채색된 배경 속 허상과도 같은 아이폰 크기의 구멍들을 뚫는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작품은 마치 온라인 세상의 무용론을 제시하는 듯 공허한 백색 디지털 밀실에 갇히지 않아야 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무감각하게 핸드폰 스크린을 쓸어넘기는 <The Collective> 앨범 커버의 인물과 저의를 공유한다. 오랜 사전 작업들을 거친 후 대망의 2024년 3월 8일, <The Collective>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예술가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다. 그것은 태어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 에곤 실레. 43년의 아티스트 커리어를 영위하며 꾸준히 생존 중인 Gordon. 본 리뷰가 힙합 전문 매거진에 기고되었듯, 노이즈 락과 얼터너티브 락의 원로 예술가는 본작을 통해 '힙합'을 향한 신호탄을 쏘며 의연히 변신을 시도한다. 아티스트로서의 생존을 염두해야 할 나이 70세에 접어든 움직임으로는 쉽게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리어 내내 기성 예술의 규격 형식을 비틀며 도발적인 입장을 취해온 Gordon이기에, 이러한 급진적인 변모가 예상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선택은 아니다. Gordon의 행적을 틀어보면 힙합 장르에 눈길을 준 짐새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과거에도 Public Enemy의 Chuck D와 협업 트랙 "Kool Thing"을 제작한 바가 있으며, 1집의 수록곡 "Paprika Pony"에서도 엄연히 힙합의 것으로 분류되는 카우벨과 클랩 사운드의 혼적이 있다. 하지만 홀륭한 예술이 기네스북 신기록의 경쟁에서 탄생하지 않듯이, 앨범의 전면을 관망하면 Gordon이 시도한 우회 드리프트의 혁신성보다도 음악적 완성도를 구축한 방법론이 더욱 이목을 잡아끈다.



그 자태는 어떤 형상으로 드러내는가? 백문이 불여일청. Narcissist 버전 Playboi Carti의 에스테틱이 물씬 풍기는 "BYE BYE"가 청자들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연이은 트랙 "The Candy House"에선 카우벨과 808 베이스 등 드리프트 풍크의 클리세를 거침 없이 차용한다. "Trophies", "Shelf Warmer", "Dream Dollar" 등의 연이은 트랙들 모두 Sonic Youth, Head/Body, Kim Gordon 앨범에서 쉽사리 보지 못한 힙합 트랙의 정체성을 확고히 표출한다. 기본적으로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덥석 와닿는 트랩 뱡어들의 배치를 기초 구성으로 삼지만, Sonic Youth의 커리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연받은 <Confusion Is Sex>와 <Bad Moon Rising> 등에서 드러난 초기 노 웨이브 성향과 인더스트리얼적 악곡 요소들의 향취를 적극 투입하며 Gordon스러운 미학을 물씬 풍기게 한다.

이 대담하고도 무방비한 장르 콜라주의 짜임새 있는 결실은 전작 <No Home Record>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Justin Raisen의 손길 아래에서 탄생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사운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구성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방식 말이죠." 그는 본래 Charli XCX, Yves Tumor, Sky Ferreira와의 협업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Lil Yachty, Teezo Touchdown, Kid Cudi를 통해 힙합 계열의 사운드에도 알음알음 독자적 식견의 새싹을 키워냈다. 덕분에 그간 쌓아온 장르 혼합 기법의 일가견을 비춰내며, Gordon에게서 볼 수 없던 힙합 비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본작이 탄생했다.

앨범의 진가는 앞서 살펴본 배경 이야기가 이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노이즈의 주파수와 정확히 맞물림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 광적이고 폭발적인 인더스 트리얼 트랩 사운드 트랙들의 알맹이 속에 온라인 그물망의 위에 놓인 고립과 상실의 감정을 이식하기까지. 끼워맞춘 경첩마저 부러뜨릴 듯 접점을 찾기 어려운 두 요소는 Gordon의 보컬 퍼포먼스와 무성의한 듯 흘러놓은 가사를 통해 결합한다. 캐리어 속 여행용 짐 목록을 나열하고선 미련 없이 이별을 외치는 "BYE BYE", 별다른 저의 없이 트로피와 볼링 핀을 소재로 줄줄 가사를 늘어놓은 "Trophies", 원치 않은 선물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적 고통을 털어놓는 "Shelf Warmer"까지. Gordon이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리릭시즈다는 선보이진 않지만, 냉소를 던지는 어느 염세주의자의 시선과 관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가사들을 채워넣었다. 그 빈도와 전달력마저 의도된 미비함으로 여백을 형성하여 앨범의 주제에 걸맞도록 치밀하게 조작해낸다.

엄연히 <The Collective>는 힙합 앨범, 그것도 트랩과 인더스트리얼 사운드 요소들을 주체로 삼은 앨범에서 기대하는 장면들을 선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Gordon에게 머니 스웨깅이나 클럽 뱅어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기대도 없을 것이다. 장르의 오묘한 경계선에서 선택배합되는 핑크빛 사회 공황의 매무새. 이 특색이 존재하기에 앨범이 내재한 그 어떤 요소보다도 'Gordon스러운 앨범'이란 특징점이 최우선으로 떠오르게 된다. 적극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렇다 한들 어느덧 상실한 젊음을 결코 성급하게 흉내내지 않는다. 똑심 있게 진행하는 진취적 실험. Gordon은 아직까지도 상이한 관계의 두 단어 모두와 단단히 엮여 있다.

2024년 노년기에 접어든 전설적인 예술가는 현대 사회의 관계망을 부유하며 사색과 고찰의 결과물 <The Collective>를 내놓았다. 왜 우리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착각을 하며 몸소 쇠사슬에 목덜미를 드리우는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자각하고도 왜 또다시 도파민을 췌는 야욕에 사로잡히는가. 일부 범작들을 빼면 줄곧 철없고 덧없는 젊음으로 여겨지는 트랩 장르의 음악에서 흔치 않게 뜻깊은 성숙함이 어려 있는 무게감을 겪어볼 수 있다. 상실이란 토대 하에 고립감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피는 본작을 감상할 때면, 연륜 넘치는 아티스트가 완성도 높게 만들어낸 관철적 자기성찰이 얼마나 예술적인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 표현법마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Gordon의 건재함은 역시 다시금 강조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 어느덧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지고 허리가 조금 굽었을지 몰라도, 그 걸음걸이에선 여전하게 도 구두굽이 또각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TRACKS

01. Gangsta
02. Los Awesome (feat. Jay Rock)
03. Collard Greens (feat. Kendrick Lamar)
04. What They Want (feat. 2 Chainz)
05. Hoover Street
06. Studio (feat. BJ the Chicago Kid)
07. Prescription/Oxymoron
08. The Purge (feat. Tyler, The Creator & Kurupt)
09. Blind Threats (feat. Raekwon)
10. Hell of a Night
11. Break the Bank
12. Man of the Year
13. His & Her Fiend (feat. Sza)
14. Grooveline, Pt. 2 (feat. Suga Free)
15. F**k LA
16. Gravy
17. Yay Yay

2014.02.25

by Editor 은암

강스터 랩은 더 이상 힙합의 성공을 상징하지 않는다.



황금기의 석양이 래퍼들의 장신구에 블링 에라(Bling Era)라는 빛을 드리웠던 것조차 이미 한참 전이다. 도전자들은 장르의 기성 이미지에서 독립한 채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해나갔고, 그 중 음악과 테마에서 선두에 선 이가 차후 트렌드의 타수가 되었다. 급변기의 최대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이전 쟁탈전의 우승자였던 서부였다. 2000년대 이래로 배출한 랩스타들이 정작 타 지역 출신이었다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뜬한 상업성을 과시하던 웨스트코스트는 Kanye West 와 Lil Wayne 등이 이끄는 새 트렌드에 천천히 무너져 내려갔다. 폭력 대신 약물이, 갱스터의 삶 대신 향락과 성공이 랩 리릭시즘을 장악한 작금. 그럼에도 갱스터 랩이 호흡기로 연명하는 노인 신세가 되지 않은 이유는, 갱스터 랩의 고장에서 계속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인 흥취를 추구한 YG부터 갱스터의 삶을 연극의 한 장으로 꾸민 Kendrick Lamar까지, 2010년대 초 신예들의 부상 중 갱스터 랩은 다채로운 재해석을 거치며 장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오늘의 주인공 스쿨보이 큐(SchHoolboy Q)만큼이나 'real'한 이는 존재치 않는다.

사실 큐의 크립스(Crips) 경력을 감안해본다면, 그가 같은 Black Hippy 소속의 Kendrick Lamar나 Ab-Soul 같이 걸출한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 갱스터 랩의 계보를 잊지 못할 이유는 전무하다. 그는 남들이 허풍스럽게 떠들어대곤 했던 갱스터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이이고, 그가 음악에서 실토했는 내용에는 한 치의 거짓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는 비단 장르성을 초월해, 랩에 과도하게 심취한 정통론자들이 요구하는 현실과 페르소나의 합치를 완벽히 이뤄낼 수 있는 유일인이다. 때문에 <Oxymoron>은 필연적으로 큐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대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TDE 소속으로 발매했던 전작들 <Setbacks>와 <Habits & Contradictions>이 '갱스터 랩 적자'로서 스쿨보이 큐의 입지를 다졌다면, <Oxymoron>은 메이저 랩씬의 명단에 스쿨보이 큐를 올려야 하는 종책을 맡았다. 일종의 '대작'이 되는 운명인 것이다. 그것이 가장 폭발적인 현대 갱스터 랩 앨범이 되던, 혹은 한 갱스터 래퍼의 부성애 담긴 편지가 되던 간에 말이다.

안타깝게도 <Oxymoron>은 TDE 내 非 Kendrick Lamar 멤버들의 대표작이 그려졌듯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명반까지는 되지 못했다. "Los Awesome", "Collard Greens" 등 히트 싱글들의 어색한 배치는 둘째치고, 몇몇 트랙들의 출중한 묘사와 스토리텔링에도 불구하고 <Oxymoron>의 트랙 순서는 상당히 어설프다. 90년대 갱스터 힙합 음악과 클럽튠, 트랩마저 오가는 것이 평소 큐의 음악적 성향이라곤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조율을 배제한 나열은 그저 음반으로서의 정체성을 저해할 뿐이다. 일례로 큐와 Tyler, Kurupt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중요한 트랙 "The Purge"는 앨범 전체에서 그 허울만큼이나 흥미롭게 작용하지 못한다. 더불어, 어린 딸의 얼굴을 앨범 커버로 사용했을 만큼 부성애와 드라마를 강조한 제작 의도는 오직 딸의 실제 음성 삽입에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Oxymoron>에서 <good kid, m.A.A.d city>와 같은 치밀한 설계를 발견할 수 없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와 주동인물의 성장, 하다 못해 결말부의 뻔한 교훈마저도 <Oxymoron>의 원소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Oxymoron>은 융통성 없이 뻔한 갱스터 힙합 앨범이다.

그러나 과거의 교보재들 이상으로, <Oxymoron>은 그 아쉬움을 상쇄할 만큼 만족스러운 갱스터리즘 엔터테인먼트를 함유하고 있다. Henry Mancini를 감각적으로 차평한 Sounwave 산의 인트로 "Gangsta"부터 독특한 드럼 브레이크에 기반한 히트 싱글 "Collard Greens" 등의 곡들은 앨범의 강렬한 오프닝을 담당한다. 다분히 장르적인 두 장곡 "Hoover Steeleets"와 "Prescription/Oxymoron"은 갱스터리즘의 암담함을 조명하고, 트랩에 기반한 파티송 "Hell Of A Night"는 앨범의 톤앤매너를 유지한 채로 트렌디함이라는 부가적인 성과까지도 성취한다. The Alchemist가 주조한 "Break The Bank"의 가공할 파괴력은 역시나 만족스럽고, Chromatics의 "Cherry"를 샘플링한 엔딩 "Man Of The Year"는 화룡점정으로서 큐가 그동안 추구한 힙합과 사이키델릭의 조화를 완성시킨다. 통제되지 않는 다양성으로 인해 앨범의 구성이 아쉽긴 하나, 갱스터 랩 음반으로서 <Oxymoron>의 수록곡들이 가진 개별적 매력만큼은 부정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부정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Oxymoron>만의 고유 특장점을 모두 제쳐두고서, 본작이 가지는 최고의 어드벤티지는 따로 있다. 퍼포머, 아티스트, 스쿨보이 큐 본인. 앞서 언급했듯 스쿨보이 큐가 선배들이나 동시대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출중한 필력을 지닌 래퍼는 아니나, 단순히 '랩'이라는 창법이 주는 쾌감만을 비교했을 때 큐의 아성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신경질적인 야수는 어떤 타입의 비트에서도 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감각적인 플로우를 수놓으며, 이는 특유의 톤이 가진 탄력으로 극대화된다. 생각해보라. Jay Rock, Kendrick Lamar, Tyler, The Creator, Kurupt, Raekwon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등장에도 앨범의 주도권은 스쿨보이 큐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 어떤 지리멸렬한 수식어보다도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스쿨보이 큐는 그저 랩을 잘한다. 랩에 최적화된 인재의 역량이 실화라는 배경과 절묘히 맞아떨어질 때, <Oxymoron>이 장르 음악으로서 제공하는 쾌감은 막대하다.

예술은 탐구와 사유를 통해 제 가치 이상의 것으로 거듭난다지만, 굳이 복잡한 과정 없이도 충분한 쾌감을 주는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쉬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여러 명반들이 배출된 2014년에서 <Oxymoron>은 바로 그러한 위치를 담당한다. 가공할 랩 퍼포먼스, 중독적인 힙, 적나라한 묘사, 폭력적인 언어들과 다채로운 비트들까지 본작은 랩 엔터테인먼트로서 모난 부분이 없다. 혹여 <Oxymoron>이 큐의 최고작은 아닐 지라도, 언급량부터 상업적 성격까지 <Oxymoron>이 현재까지도 그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임에는 이견이 없어보인다.

JURASSIC 5 QUALITY CONTROL

by Editor 악귀블페워컴

- 01. How We Get Along
- 02. The Influence
- 03. Great Expectations
- 04. Quality Contro Inro
- 05. Quality Control
- 06. Contact
- 07. Lausd
- 08. W.O.E is Me (World of Entertainment)
- 09. Monkey Bars
- 10. Jurass Finish First
- 11. Contribution
- 12. Twelve
- 13. The Game
- 14. Improvise
- 15. Swing Set

우선 판게아가 갈라지기 전, 트라이아스기를 힙합의 시작점인 70년대로 가정하자. 혼란스럽지만 눈부신 섬광의 그 순간을 지나, 이후 80년대 쥐라기 시대가 도래 한다. 힙합의 태동기이자 동시에 올드스쿨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는 힙합이 본격적으로 여러 갈래의 하위 장르로 나뉘었다. 마치 판게아가 갈라지듯 말이다. 얼터너티브 힙합도 이때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는 분명히 새로운 조류였으며, 이 흐름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올라타 마치 후대에 씨를 뿌리듯 여러 작품을 발매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의 씨는 조그마한 형체로 발아했고 어느덧 커다란 볼륨으로 성장했다. 쥐라식 5(Jurassic 5)의 <Quality Control>로 말이다.

<Quality Control>은 Rebels of Rhythm과 Unity Committee라는 두 개의 크루에서 각각 모여 꾸려진 6인조 그룹 쥐라식 5에 의해 발매되었다. 새천년, 즉 2000년에 탄생한 작품이지만, 전반적으로 80년대의 사운드 포맷을 차용했기에 크게 색다르거나 놀라울 건 없다. 하지만 답습도 답습 나름. 쥐라식 5의 역행은 진지하지만 지겹지 않았고, Cut Chemist(컷 케미스트)와 DJ Nu-Mark(디제이 누-마크)의 지휘 아래 오히려 경쾌한 몰입감을 선사해 준다.

먼지가 가득 쌓인 듯한 샘플, 재즈 브라스와 피아노, 과하게 평키한 베이스 루프에 스크래칭이 가미된 턴테이블리듬까지. 특별한 사운드적 장치를 배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담백한 하모니로 털바꿈하여 종횡무진 흥미로운 그루브를 자아낸다. 특히 절정의 리드미컬 베이스가 듣보이는 "Quality Control"과 재치 있는 재즈 사운드가 담긴 "Jurass Finish First"는 듣는 내내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에 스윙재즈와 스크래치를 믹스한 마지막 트랙 " Swing Set"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다.

퍼포먼스는 어떤가? 솔직히 이들의 래핑은 정교한 기술처럼 잘 짜여 있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마치 오랜 기간 합을 맞춰온 밴드처럼 이들은 적재 적소의 더블링을 활용해 한 몸 같은 융화를 보여준다. 또한 가사에 입체적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다. 첫 구절부터 ' We are no superstar'를 외치며 피상적인 화려함을 죽이기는 슈퍼스타들의 어두운一面을 경계하며,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Laused",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인생을 탓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Contribution"과 같이 컨셔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외 80년대를 대표하던 힙합 아티스트들을 레퍼런스하는 "Monkey Bars"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쥐라식 5의 음악이 당대 트렌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작법론은 당대에 희소했기에 빈틈을 적절하게 파고들었고, 서문에 언급했던 커다란 볼륨의 <Quality Control>은 새로운 언더그라운드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당시 상업화로 비대해지고 화려해진 힙합씬에 반해, 80년대 고전을 순수하게 애정하고 리スペ하는 쥐라식 5의 스탠스가 낙진하게 녹아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매들립(Madlib)이
훌륭한 힙합
프로듀서가 아니었던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Classic Album Review

by Editor 온암

**Madvillain – Madvillainy
Freddie Gibbs & Madlib – Piñata**

매들립(Madlib)이 훌륭한 힙합 프로듀서가 아니었던 시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겨우 11세 때부터 샘플링을 시작해 가히 터테이블의 마스터라 찬사할 만한 솜씨를 갖춘 그는 샘플의 원작자조차도 미처 떠올리지 못했을 용처를 새로이 부여하는 작법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가 데뷔하고 스톤 스로우 레이블의 주축이 된 아래로 <The Unseen>, <Shades of Blue>, <Champion Sound> 등 얼마나 많은 역작들을 남겼는가? 매들립의 천재적인 방법론과 그에 부응하는 작업물의 완성도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지각에 변동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언더그라운드를 혁신시키기 위해선 천재성 이상의 권력이 필요했다. 권력을 가진 것은 왕, 매들립은 그가 이전부터 협업하길 소망했던 지하의 폐위된 왕을 찾아나섰다.

"Not one but two - typical villain releases included... and a sequel... Both the villains were to meet in..."

엠에프 둠(MF DOOM)의 데뷔 앨범 <Operation: Doomsday> 발매가 물꼬였다. 고작 언더그라운드 래퍼의 첫 음반이었던 만큼 상업적 성과는 미미했으나, 앨범의 독특한 작품성은 매들립으로 하여금 둠의 음악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매들립은 몇 년에 걸쳐 마침내 길거리를 전전하던 둠의 행방을 찾아냈고, 스톤 스로우의 지원 하에 2002년 <Madvillainy>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나 재밌는 것은, 현재 힙합 역사상 최고봉이라 평가받는 본작의 가공할 완성도에 비해 둠과 매들립의 작업은 꽤 족족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제작 기간 2년 동안 두 아티스트가 대면한 시간은 매우 적었고, 그마저도 술과 환각제에 취한 채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을 뿐이다. 심지어 작업 기간 동안 매들립은 J Dilla와의 합작 <Champion Sound>를 발매했고, 둠은 <Take Me To Your Leader>와 <Vaudeville Villain>을 연이어 낸 후 <MM..FOOD>의 작업에 착수했다. <Madvillainy>는 두 아티스트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매들립은 브라질에 침기하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고, 둠 또한 테이프를 받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을 뿐이다. 어느 사례가 그렇듯, 역작은 우연히 탄생하는 법이다.

인스트러멘탈 재즈 힙합 앨범이었던 <Shades Of Blue>부터 재즈 기반 사이키델릭 힙합의 지평을 연 <The Unseen>까지 한 뿌리에서 분기되는 매들립의 비트메이킹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광활하다는 말이 잘 어울린다. 그 중 <Madvillainy>는 매들립의 커리어에서도 최고일 뿐 아니라, 아래글러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가장 괴기하나 동시에 힙합의 원류에 가장 가까운 프로덕션. 프로듀싱에 비교우위를 가진 매들립에게 둠은 비트메이킹의 전권을 넘겼지만, 동시에 그의 고유적인 너드 감성까지도 전수했다. 본작은 주로 재즈와 소울 중심의 샘플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인도, 브라질 음악과 애니메이션 영화의 OST와 대사, 비디오 게임 효과음까지도 샘플링한 매들립의 탐식안은 분명 둠의 그것과 동류에 속했다. 매들립은 둠의 작법을 한 층 진보시켜 그의 비트 스타일과 유사하면서도 이전에 본 적 없는 비트들을 탄생시켰다. "Experience"를 샘플링한 "Accordion"은 샘플 뮤직 역사상 아코디언을 샘플링한 최초의 사례이며, 브라질 음악 "América Latina"의 한 박자를 반복시켜 6/8박자를 4/4박자로 재구성한 "Raid"의 샘플 플립은 가히 천재적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Ironside> 시리즈의 오프닝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선율은 이제 음악 역사상 최악의 악당 매드빌런(Madvillain)의 테마로 기억된다.



수십 개의 샘플과 다이얼로그로 빈틈 없이 연결되는 46분 간의 힙합 악곡 위 둠은 마왕으로서 군림한다. 매들립이 그에게 최적화시켜 조성한 분위기에 둠의 톤은 안성맞춤이었다. 언더그라운드를 상징하는 듯한 음험한 저출력 음성부터, 둠은 기성 힙합의 가치에서 완전히 엇나간 반향아와 같았다. 골든 에라를 거쳐 완성된 라임 체계에 가볍게 날리는 천재의 냉소처럼, 그는 한 구석에서 백과사전에 버금가는 수량의 라임을 빚어내며 고도화된 패턴과 편치라인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Meat Grinder"와 "Figaro"에서 라임만으로 벌스를 구성하는 기행은 아직까지도 MC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남아있다. 또한 "Strange Ways"에서는 전쟁 비판 주제의 컨셔스 랩을, "Fancy Clown"에서는 네토라레 스토리텔링 랩이라는 독특한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단순 다중 비유를 통한 자기과시 이상을 보여줬다. 특별 게스트로 등장하는 콰지모토(Quasimoto)와 빅터 본(Viktor Vaughn)의 존재는 화룡점정이다. "Accordion"의 첫 구절은 16년 후 그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라인이 되었고, "All Caps"에서 그가 모든 힙합 팬들을 향해 내린 정언 명령은 힙합의 가장 상징적인 표기법이 되었다. 시대를 수놓은 명반의 상징인 박수 갈채 속에서 둠은 "Rhinestone Cowboy"의 역사적인 구절들을 수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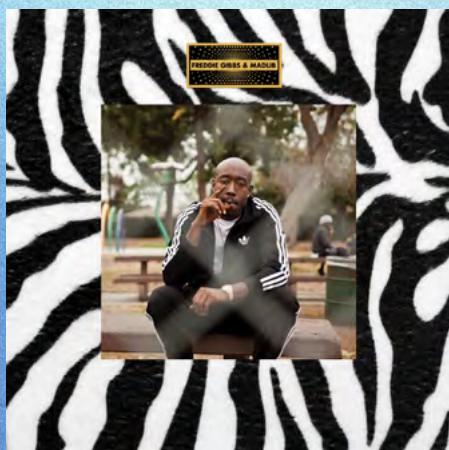
1990년대에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이 있다면 2000년대에는 <Madvillainy>가 있다는 말이 있다. 랩 음반으로서의 압도적인 완성도에 더불어 시류를 바꿀 만한 컬트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매들립의 프로덕션과 둠의 래핑은 각각 미국 언더그라운드 힙합계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앱스 트랙 힙합과 익스페리멘탈 힙합이란 서브 장르가 부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꽤나 많은 공통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두 장르 간 교집합의 정중앙엔 우리를 응시하는 악당의 얼굴이 선명하다. 또한 기존의 벌스-훅 구성을 극단적으로 제한 결과 <Madvillainy>의 방법론을 따라 다수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트랙이 벌스만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악곡의 길이도 축소되었다. 2020년대에 와서야 대부분 2분대로 줄어들게 된 곡의 길이를, 매드빌런은 앨범 하나로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이미 그러하게 한 것이다.

거성이 드리운 그림자는 아직까지 질기만 하다. 현대 힙합의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Madvillainy>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다. 이미 연이 달아 작업을 진행한 선배 격 인물 Ghostface Killah는 물론이고, 언더그라운드를 상징하는 지성인 Mos Def와 Talib Kweli는 <Madvillainy>의 위대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Odd Future의 Tyler, The Creator와 Earl Sweatshirt는 둠의 열성적인 팬으로 유명해 그들의 랩과 음악에서 악당의 표식을 여실히 드러냈고, Pro Era의 Joey Bada\$\$와 Capital Steez 등은 초기 작업물에서 둠의 비트와 라임을 대출했다. Danny Brown 또한 본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뿐더러, 현재 앱스트랙 힙합 씬에서 떠오르는 신성 MIKE는 그의 룰모델이 <Madvillainy>의 매들립과 둠이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꿀 빨린 언사뿐이 아닌, 음악이라는 실재적 증거물로서 나타난다. 심지어는 타 장르의 또 다른 거장인 Radiohead의 Tom Yorke조차 <Madvillainy>의 우수성을 극찬하며 "Raid"에 주목했을 정도이니, <Madvillainy>가 지닌 가치는 이미 장르의 벽까지도 초월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그것은 <Madvillainy>가 샘플 기반 음악인 힙합으로서 그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성 자료를 가면의 형태로 엮은 데에 까닭을 둔다.



그리고 약 10년 후, 매들립은 또 하나의 대형 합작 프로젝트를 힙합의 판테온에 전시하게 된다. <Madvillainy> 이후 탄탄한 커리어를 유지하며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전 이상의 위세를 끼친 그는 제 2의 <Madvillainy>를 제작하기 위해 둘의 자리를 대체할 래퍼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들립이 선택한 파트너는 다른 아닌 프레디 깁스(Freddie Gibbs)였다. 오랫 동안 언더그라운드 랩씬에서 탄탄한 스킬로 이름을 날렸고 Jeezy와 계약을 맺은 래퍼,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실력만큼은 보증된 그야말로 매들립이 원하는 인물상 그 자체였다. 2011년 <Thuggin'>을 시작으로 1년마다 <Shame>, <Deeper>까지 본 앨범을 예고하는 EP를 발매한 듀오는 기대감을 높이며 2014년 마침내 <Piñata>를 발표했다.

이제 막 발매 10주년이 되었지만, <Piñata>의 프로덕션은 역사상 가장 미학적으로 프로듀싱된 랩 음반 중 하나라는 찬사가 결코 어색하지 않은 경지에 이르렀다. 90년대 골든 에라의 향취를 소환하기 위해 6~70년대 소울, 재즈, 평크, 알앤비를 위시한 흑인 음악 기반의 샘플링 방식을 택한 매들립은 샘플 원곡이 가진 노스탤지어와 그루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공 방식을 모색하며 그만의 방식으로 RZA 등이 이룩했던 황금기 힙합을 재현했다. 어느새 그의 상징이 된 블랙스풀로이테이션 스킷 삽입으로 시대감을 부여하는 전략 또한 유효했다. 2014년의 앨범이지만 작품의 지향성은 짧게는 90년대, 넓게는 70년대를 향하기에 갱스터 랩과 코크 랩 테마가 전혀 어색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음향만으로 청자에게 다른 시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매들립 같이 위대한 소수의 프로듀서만이 가능한 경지이다. 물론 매들립의 비트 CD에서 앨범에 수록될 곡들을 엄중히 채택한 프레디 깁스의 감각 또한 제할 수 없다. 엄연히 듀오를 이루는 총괄이자 래퍼로서 깁스 또한 탁월한 음악가의 자질을 가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Madvillainy>와 <Piñata>를 비교할 시 좀 더 흥미로워진다. 같은 프로듀서가 유사한 작법으로 프로듀싱했으며 둘 모두 대부분의 작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Madvillainy>는 앱스트랙, 익스페리멘탈 힙합으로 분류되는 반면 <Piñata>는 그렇지 않는다. <Madvillainy>의 프로덕션이 더 실험적임과 동시에 <Piñata>의 프로덕션이 더 원숙하다는 이야기이다. 흑인 음악 기반의 자유분방한 샘플 사용은 여전하면서도 <Piñata>는 결코 선을 넘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 철저히 루프 중심의 기준 작법을 따라가면서도 크게 귀를 거스르는 사운드를 산출하지 않는다. 드럼 프로그래밍으로 저명한 매들립임에도 불구하고 드럼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믹싱해 로파이와 드럼리스의 속성을 일부 부여했지만, 드럼의 역할을 샘플 프레이즈에게 대신 부여해 여전한 리듬감을 생산하는 것이다. 완성도는 더할 나위 없으면서도 불필요한 전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전반적으로 <Piñata>가 <Madvillainy>보다 정통 힙합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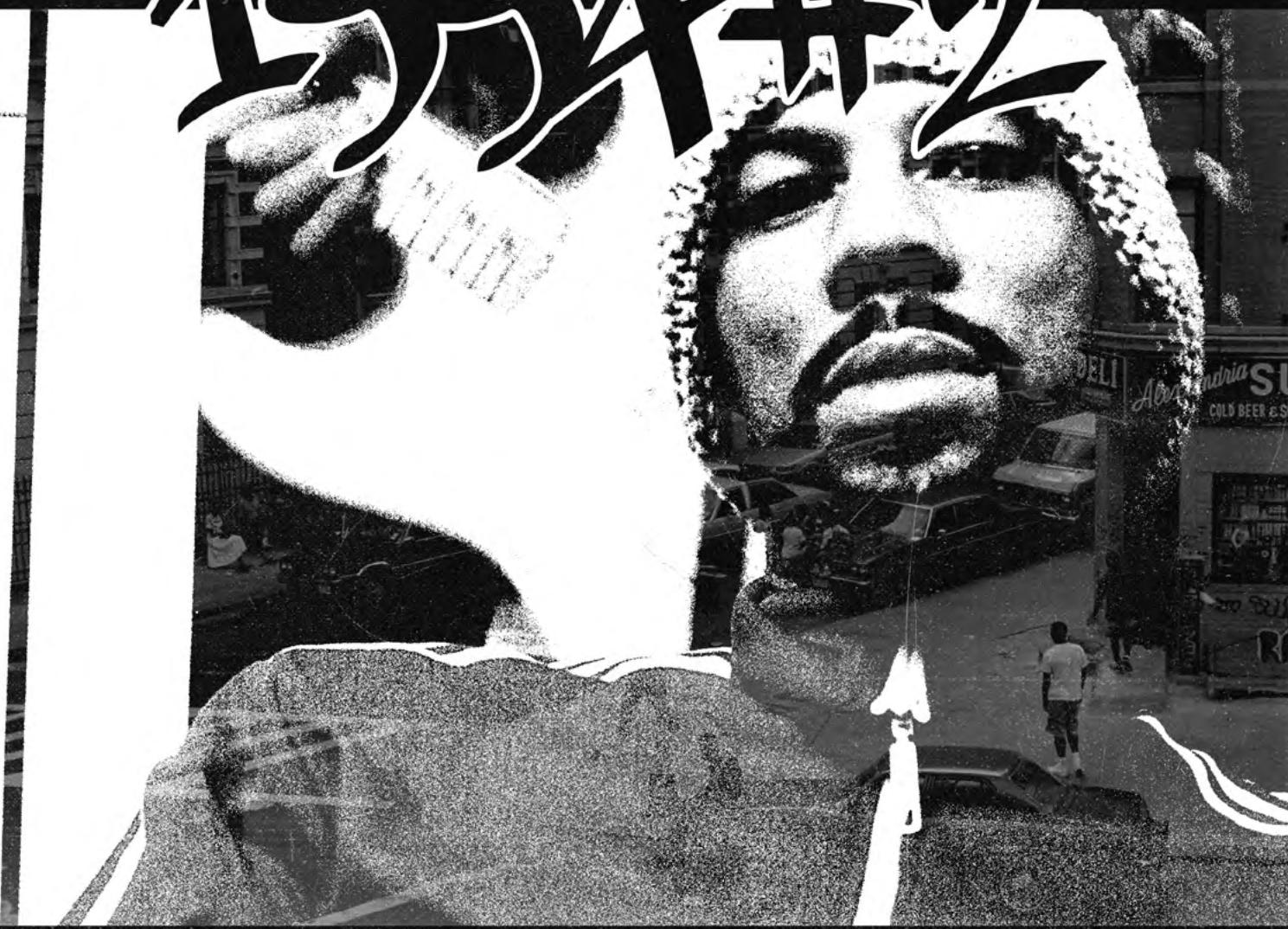
물론 그 결론의 나머지 절반은 프레디 킵스가 차지한다. 프레디 킵스는 엠에프 둘보다 훨씬 정석적인 래퍼에 가깝다. 힙합이 요구하는 갱스터의 이상향을 한 인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킵스일 것이다. 비교를 불허하는 견고한 초저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랩 플로우의 진격을 막을 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High"처럼 흥취를 자극하는 트랙에서 "Bomb" 같은 정통 갱스터 랩 트랙으로 교차되는 지점에서도, 그의 천부적인 톤은 철저히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디 트랩 비트를 주력으로 활동했음에도 킵스는 매들립의 블랙 비트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데, 그가 다수의 트랩 곡에서 선보였던 속도감이 일부 블랙 곡에서도 고스란히 발현되며 앨범은 기존의 올드스쿨 블랙 음반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선사한다. 정통 갱스터 랩을 표방하는 본작의 플레이어답게, 킵스는 마초적인 기조로 과거 갱스터와 마약상으로서의 삶을 노골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입체적인 비유들로 열여섯 마디의 질서에서 예상을 약간씩 빗겨나가는 골든 에라의 미덕을 준수한다. 가히 최고의 리릭시스템들만이 그 계보를 잇는다는 코크 랩의 역사에 중요한 이름으로 남기 부족하지 않은 역량이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돌아켜보면, 그는 심지어 아직 발전 중이었던 것 같다.

앨범을 대표하는 싱글인 "Thuggin'"은 Rubba의 "Way Star"를 샘플링한 아이코닉한 비트와 킵스의 거침없는 래핑으로 만장일치의 호평을 받으며 이제 현대 갱스터 랩을 상징하는 명곡으로 남았다. "Shitsville"과 "Real" 등의 야성적인 랩 트랙에서 우리는 비트를 포식해버릴 듯이 광포하게 랩하는 킵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Broken"과 "Kicks" 등 차분한 재즈 힙합 비트 위 갱스터의 삶이 새기는 상처에 대해 진중히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정성 또한 포착할 수 있다. Lenny White의 "Sweet Dreamer"를 관능적으로 커팅해 프로듀싱한 낭만적인 "Robes"는 현재 트렌드 중 하나로 대두되는 드럼리스 힙합의 초기 형태로 사료되기도 한다. 그 옛날 래퍼들이 그려냈듯이 Domo Genesis, Meechy Darko, Mac Miller 등 7명의 래퍼가 모여 하나의 벌스씩을 담당하는 셀프타이틀 단체곡 "Piñata"는 황금기 힙합을 지향하는 앨범의 엔딩으로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매들립의 영화적인 프로덕션과 킵스의 능수능란한 래핑 하에 통일성을 지니며 하나의 음반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한다.

사실 <Piñata>는 '황금기 힙합의 준수한 재림' 정도에 불과했던 초기 평가에 비해 10년이 지난 작금의 평가가 상당히 부풀려진 사례에 해당한다. 모두가 J. Cole의 <2014 Forest Hills Drive>나 Logic의 <Under Pressure> 등 한창 주목받는 신예들의 수작에 열광할 때, 당시의 <Piñata>는 그저 소수의 매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는 정도의 앨범에 그쳤다. 현재 모던 클래식으로서 골든 에라의 내로라하는 명반들과도 자주 비교되는 모습에 대조했을 시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Piñata>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애써 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Piñata>가 실제로 그만큼이나 대단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현재의地位도 상당하나, 후대로 갈수록 본작의 가치는 더욱 고평가받게 될 것이다. 마치 <Madvillainy>가 옛적 그랬던 것처럼.

매들립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십 년에 걸쳐 수많은 명반들을 역사에 전시했던 그였으나, 그의 최고작들은 언제나 래퍼들과의 협작이었다. 래퍼들의 스타일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그 자신의 비트 제작에 대한 저변을 넓히며 위대하게 남을 프로덕션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고, 당대 최고 래퍼들의 협력은 앨범들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작들로 거듭나게 했다. 반대로 그들 또한 매들립이라는 걸출한 프로듀서를 파트너로 두었기에 그들 커리어에서 최고작으로 남을 음반을 남길 수 있었다. <Madvillainy>와 <Piñata>는 분명 힙합에서 발발할 수 있는 협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앨범 예고와 취소를 반복하며 아직까지도 허울뿐일지 모를 아방 가르드를 좇는 Kanye West나 유사한 드럼리스 스타일로 끊임없이 연작을 거듭하는 The Alchemist와는 달리, 매들립은 Black Star의 <No Fear of Time> 이후론 앨범 단위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과연 그가 <Montana>에서 새로이 선사할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지 않을 도량이 없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1990년대에는 존재하는 거의 모든 래퍼가 거리의 시를 썼다.

그들이 가진 문장력의 노련미를 판가름하는 것이 게토의 리릭시즘이었고,

그들의 플로우를 멋스러운 스릴로 뒤바꾸어놓는 것이 거리에 관한 전언이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1990년대에는 존재하는 거의 모든 래퍼가 거리의 시를 썼다. 그들이 가진 문장력의 노련미를 판가름하는 것이 게토의 리릭시즘이었고, 그들의 플로우를 멋스러운 스릴로 뒤바꾸어놓는 것이 거리에 관한 전언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불세출의 랩 보컬리스트가 Nas이며, Big L이었고, The Notorious B.I.G.였다. 이정표가 될 만한 이들이 모두 거리의 시를 쓴 탓에—유망한 래퍼 지망생들은 전부 갱스터 랩과 하드코어 랩의 전당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려야만 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풀로 서츠를 입은 Kanye West가 소울 샘플과 함께 불쑥 나타나 랩 주제의 판도를 크게 뒤집어버렸다. 힙합을 논하는 이들의 태도는 급속도로 다분화되고, 썩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다가, 결국엔 완전한 과도기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하지만 이 모든 시류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Kanye가 자신만의 독특한 분수령을 개척하기 전에, '힙합은 거리의 시다'라는 명제가 완전한 본류였을 때에, 이러한 수식에 탈구축을 선언한 이가 바로 커먼(Common)이다. 그는 중후하면서도 지적인 센슈얼함을 지닌, 1990년대 힙합 씬의 이단아였다.

커먼의 랩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특권스러운 매너가 잘잘 흐른다. 그 랩 내부에 비속어와 욕설이 가득할지라도, 커먼의 혀는 상스러운 워딩마저 깔끔하고 신사적인 일갈이나 유머로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흡사 구식 턴테이블같은 자글자글한 목소리에 갓 두드린 빼기마냥 탄탄한 발성이 더해지면—커먼의 랩은 어떤 방식의 플로우를 구사하던 간에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그가 커리어 초중반까지 갱스터 랩을 배척하고, Ice Cube와 장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도 이러한 그의 일대 상류층적 태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영웅전과 같았던 골든 에라 시기 래퍼 속에서도 커먼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맹수들이 드글거리던 Wu-Tang Clan, 미치광이 예술가들 같았던 OutKast, 존재 자체로 하나의 수사가 된 B.I.G.과 2Pac 사이에서도 거리를 초탈해 랩을 밟던 커먼의 모습이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배우가 외모만으로 모든 실력이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듯이, 감독이 미장센만으로 연출자로서의 공적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커먼 또한 결국 랩을 잘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씬에 얼굴을 알렸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건조한 공치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로' 랩을 잘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 무렵 일순간 절정에 달했던 커먼의 랩은 그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Resurrection>에서 거의 그 대부분을 들을 수 있다. 이 앨범 속에서의 커먼은,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센슈얼하며 담백한 랩을 무아지경으로 밟아놓고도 아쉽다는 듯 후렴을 끊어댄다. 쭉 짜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듯한 프로덕션, 휘휘한 적막을 청렬하게 찌르는 재즈 루프 모두가 그의 랩 속에서만큼은 이국적인 우수를 띤다. 커먼은 —그 비결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일들을 실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유자재로 행할 줄 알았다. 물론 그보다는 타고난 상류층 래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앨범이 시작된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가끔은 소고기도 먹지만 되도록 절제하지(Eatin beef sometimes I try to cut back on that shit)'라 내뱉는 커먼의 랩에서는 야생적인 날 것의 냄새보다는 모던한 우디의 향이 난다. 하지만 그 우디 향을 유지한 채로 부유층의 컨셔스를 써내려가는 것이 커먼의 센스이고, 그 정체성이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유일의 원초아였을 것이다. 조금은 여유 넘치고 부유한 지위일지라도 사회상에 관한 제언들을 늘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커먼의 가사가 가진 열락이자 시대현실과 맞이하는 해후에 가까웠다.



그래서 앨범 속 그의 가사는 다분히 시적이다. 주류 래퍼들이 옮던 '거리의 시'가 아닐 뿐, 이단아스런 상류층의 위치에서 커먼은 '자신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실들에 관해 수려하게 늘어놓았다. 그 가사 속엔 일상을 흘려보내는 삶에 관한 고찰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 단순히 묘사적인 언어의 나열보다 수사학적 에세이에 가까운, 커먼의 가사야말로 '컨셔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예술론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본류의 규격과는 조금 멀어져있음에도 <Resurrection>은 리릭시즘의 정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빈민가의 퀴퀴한 르상티망은 없지만, 구름된 자유의지와 예술관을 노래하는 그의 언어 안에는 언제나 장렬한 시적 파동이 있었다. 뇌의 근원적 정수를 칭렬하게 터치하는 자발의 스윙과, 메마른 혼을 적시는 그랜트 그린의 솔이 담긴 앨범 안에는, 추억처럼 커먼의 가사 또한 있었다. 그러한, 일대의 보석같은 가사들이야말로 앨범의 가치를 바로 띄워올리는 광휘의 일부이자 언어의 테크니션이었을 것이다.

한편 노아이디(No I.D.)의 손길이 닿은 프로덕션 역시 이러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특특히 일조한다. 아마드 자말, 리빙 재즈, 게리 버턴, 그랜트 그린 등의 무수한 재즈 소스들이 <Resurrection>이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파편화되어 톤앤매너를 조성하는 용매 역할을 했다. 그 음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있어서, 노아이디는 샘플러 원곡이 가진 파릇함과 차분함을 여과없이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제자 Kanye가 오로지 샘플링 활용만으로 <Late Registration>이라는— 힙합사의 경쾌함과 싱그러움을 상징하는 음반을 만들어냈을 때, 그 밑질미를 다진 사람 역시 그였음을 사유해본다면 <Resurrection>은 Kanye라는 예술사의 프리-프로덕션과 같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Resurrection> 프로덕션의 감촉은 여러모로 올드 칸예의 그것과 닮아있다. 창공을 성큼성큼 밟는 듯한 쾌청함과 재즈/솔 샘플러의 유려한 차핑 스킬은 시대의 단면을 뒤집어놓은 두 프로듀서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장르의 표충 아래에 정열적으로 뿐었던 열예들이, 마침내 한 사람의 호젓한 컨셔스 래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숙명적 설렘을 동반한다. <Resurrection>에서 <Be>까지, 블루지한 고급스러움은 계속되고— 오노에 찬 예술가가 탄생했다.

<Resurrection>에 담긴 무수한 재즈 힙합 트랙들 중에서는 'Maintaining'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건 단순히 곡 속에서 차평된 MJQ의 스윙감이 감각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 스윙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커먼의 래핑 또한 금상첨화다. 재즈 힙합의 선봉장이라 할만 한— ATCQ의 혈기왕성한 오마주가 절절히 흐르는 후렴구를 듣고 있자면 가슴 한켠에 오후 두 시의 나른한 일광이 비추는 듯한 기분이 든다. 커먼의 랩 앨범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특장점이라면, 재즈의 음형 아래 따사롭게 고인 우수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그런가 하면 프레디 허버드의 차분한 음형을 차평한 'Communism' 또한 홀륭하다. 이 경우 노아이디는 Kanye보다는 J Dilla에 가까운 차핑과 예리한 변주를 보여주는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샘플 소스 위에 자유자재로 행위하는 커먼의 행색이 펴 인상적이다. 자신의 이름을 비틀어—공산주의(Communism)—경쟁적 자본주의에 관한 한탄과 일상의 무기력함을 논하는 커먼의 착상이 빛을 발하는 순간, 앨범의 가치가 바로 널뛰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을 것이다. 힙합이란 대주제가 맹렬히 숨쉬던 90년대 중반 무렵에— 이런 고급스러움을 선사할 수 있는 앨범은 <Resurrection>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전언이자 그 자체로 진실이 되는 수사인 것이다.

커먼의 랩에는 기품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었고, 그런 그의 면면을 확연히 표구한 것이 <Resurrection>이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 <Be> 또한 그가 가진 내면의 고투와 인식의 치열함에 관해 장엄하게 설파하지만, 적어도 Kanye가 커먼과 접선하기 전까지는 <Resurrection>이 그의 매그넘 오퍼스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인지 짧은 시절의 커먼을 떠올리자면 그의 2집만이 절대적인 기준점처럼 청자 앞에 불쑥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된다. 물론 1집과 3집에도 노아이디의 손길이 닿아있고, 그 앨범 속에서도 커먼의 랩은 준수하다 못해 특출나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청신함과 담백함이 없는 까닭이다. 커먼은 <Resurrection>이라는 불꽃으로 평범했던 1집의 기운을 찬란하게 불태웠지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던 예술성의 한 발자국을 딤지 못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무려 11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그 마지막 한 발을, 아주 노련하고 장엄하게 밟아야만 했다. 흔히 커먼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2005년 앨범 <Be>는 Kanye의 혁신적 프로덕션이 담긴 탓에 클래식 반열에 들 수 있었다고 평가받지만, 난 이 때문에 세인의 평가에 반기를 들고자하는— 근원적 충동에 시달린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Be>에서의 재기가 단순히 탁월한 프로덕션이나 좋은 랩 실력 덕택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모호한 영역에서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참 골든 에라의 부흥기가 끝나고 Kanye가 고급스런 힙합의 경지를 열었을 무렵, 커먼이 Kanye와 그가 제조한 전설적 프로덕션을 거느리고 <Be>를 발매했을 때— 거기엔 1994년의 매개한 초연을 연상시키는 우수가 있었다. 아워 포엣, 커먼 센스(Our poet, Common Sense). 그건 분명 <Resurrection>에 담겼던 센슈얼함과 같은 재질의 우수였다.

Who Made Playboi Carti?



Featured

Playboi Carti를 만든 인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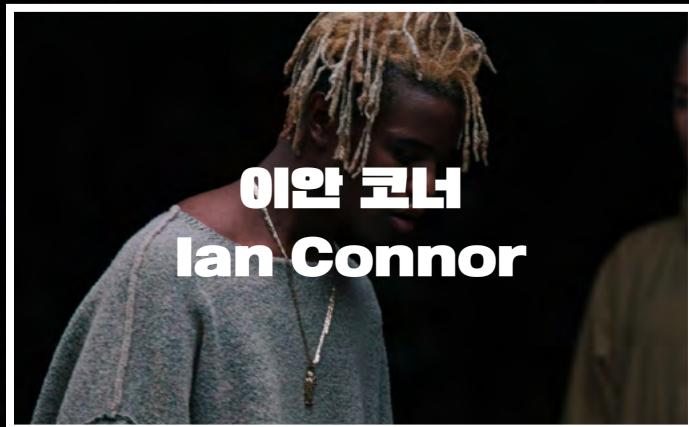
SongChico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는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후, 중독적인 애드립을 갖춘 신예 래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장르를 대표하는 레이블의 수장이자, 힙합 씬이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된 플레이보이 카티의 커리어를 돌아보며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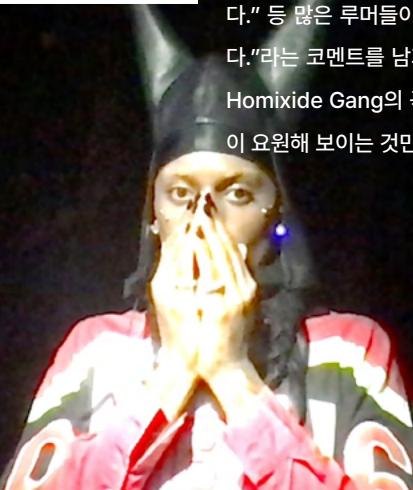


2010년대 초중반, 아직 카티가 H&M의 알바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SGP와 SGP가 이끄는 Raider Klan은 마이애미에서 결성되어 남부의 힙합 씬 전역에서 인기돌이를 했던 집단이다. 당시 많은 인물들이 Raider Klan의 팬보이를 자차했고, 카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SGP와 카티의 음악이 가진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어 보이지만, <Whole Lotta Red> 시기의 뱀파이어 기믹도, 그 전에 “Cartinese”라 불리던 대소문자와 숫자를 제멋대로 섞어 쓰는 철자법도 모두 SGP가 먼저 선보였던 것들이다. 또한 언젠간 발매될 <Music>에도 SGP의 곡을 샘플링한 트랙이 수록될 예정이지만, SGP와 에이셉 라키(A\$AP Rocky)의 사이가 멀어진 후로 카티는 라키와 계약을 맺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믹스테이프에서 “F*ck that SGP”라는 구절을 넣으며 더 이상 SGP의 팬이 아님을 선언했다.

이안 코너가 아직 힙합씬과 패션씬에서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던 시기, 이안 코너는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우연히 한 사진을 봤고, 그 사진 속 인물에게 끌히고 만다. 그 인물이 당시 이안 코너가 모델로 착각했던 카티로, 자신의 지인이 카티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티가 래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티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던 이안 코너는 카티에게 손을 내밀었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에이셉 라키에게 카티를 소개한다. 그렇게 카티는 이안 코너 덕에 AWGE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기념비적인 믹스테이프 <Playboi Carti>를 발매 했고 한동안 라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안 코너는 생계를 위해 군에 입대했던 레이지 씬의 기대주 Hardrock을 다시 힙합 씬으로 불러 들이며 그를 제 2의 카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1LTHY, Art Dealer, 그 이전에 카티의 파트너로서 가장 적합했던 인물은 피에르 본이었다. 2017년, Young Nudy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이들은 함께 <Playboi Carti>과 <Die Lit>을 탄생시켰다. 미니멀한 구성을 가진 피에르 본의 프로듀싱은 카티의 애드립이 얹어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카티와 피에르 본은 트랩 씬에서 가장 사랑받는 듀오가 되었지만 <Whole Lotta Red>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린 카티의 스타일 탓에 피에르 본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고, 그 자리는 F1LTHY와 Art Dealer 등 오피움(OPIUM)에 소속된 프로듀서들에게 넘어갔다. 피에르 본과의 협업이 줄어들면서, 둘의 불화설이 번지기도 했다. “레이블이 세일즈를 위해 칸예 웨스트의 비중을 늘리고 피에르 본을 배척한 탓이다.”, “Lancey Foux가 사용한 비트, “India”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등 많은 루머들이 흘러나왔지만 카티는 이에 “피에르와 나는 아직 친구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이 루머들을 일단락지었다. 작년엔 오피움에 소속된 Homixide Gang의 곡을 피에르 본이 프로듀싱하기도 했으니, 이 둘의 재결합이 요원해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필티가 처음 주목을 받았던 시기엔 현재처럼 레이지 장르의 프로듀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속한 집단이 보여주던 Working on Dying 타입비트, “트레드” 사운드에서 두각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2020년, 카티를 만나게 되며 필티의 커리어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굉장히 과장된 베이스와 귀를 찌르는 듯한 신스 사운드를 사랑하는 필티의 레이지 사운드는 벤파이어가 된 카티가 날뛸 장소를 제공했다. 필티가 프로듀싱하여 <Whole Lotta Red>에 수록된 “Stop Breathing”, “Rockstar Made”, “New Tank”는 앨범 내에서 가장 확실한 뱅어 역할을 수행하며 필티를 레이지 장르를 대표하는 프로듀서로 만들었다. 필티가 레이지 장르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자리에 만족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카티의 새 앨범 <MUSIC>에도 다수의 크레딧을 올릴 예정이며 이 작품 속에선 레이지 사운드는 물론, 일렉 기타 리프가 매력적인 곡도, 다시금 플러그 사운드로 돌아간 카티를 담아낸 곡도 제작해 <Whole Lotta Red> 이후로 다시금 중책을 맡게 되었다.



오지볼타는 “Oji” 마크 윌리엄스와 “Volta” 라울 쿠비나가 결성한 프로듀싱 그룹으로 Lil Nas X의 “Industry Baby”,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 “On the Ground”를 프로듀싱했으며, 칸예 웨스트의 <DONDA>에선 총 19곡에 참여해 큰 비중을 가져갔다. 최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CARNIVAL”을 프로듀싱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카티와의 첫 만남은 <Whole Lotta Red>에 수록된 “On That Time”을 필티와 공동 프로듀싱한 것으로, 후엔 오피움에 합류하여 레이지를 대표하는 이들의 곡을 일렉 기타를 활용한 편곡을 통해 무대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는 등, 오피움의 “락스타화”에 일조했다. 오지볼타는 당연히 <MUSIC>에도 크레딧을 올렸으며 해당 앨범의 선공개곡 “2024”, “BACKROOMS”, “KETAMIN”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CARDO, 필티와 함께 주요 프로듀서로서 등장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이 카티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들이라면, SEXISDEATH는 카티의 외형을 담당한다. 덴마크 출신의 타투이스트인 그녀는 자신의 고객이자 친구인 카티의 제의로 오피움에 영입 되었다. 합류한 뒤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의상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작업을 진행하며 오피움이라는 브랜드의 전반적인 비주얼을 담당했다. 카티의 주변인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내건 “I AM MUSIC”이 적혀있는 로고와 “ANTAGONIST” 투어의 로고 디자인을 맡았으며, “BACKROOMS”와 “KETAMIN”의 비디오를 제작했다. SEXISDEATH는 고딕풍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오피움의 비주얼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음악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이엠그라운드 내가 들었던 앨범 중에서 앨범 커버 인상 깊었던 작품 소개하기!!!

★ 현직 디자이너가 썼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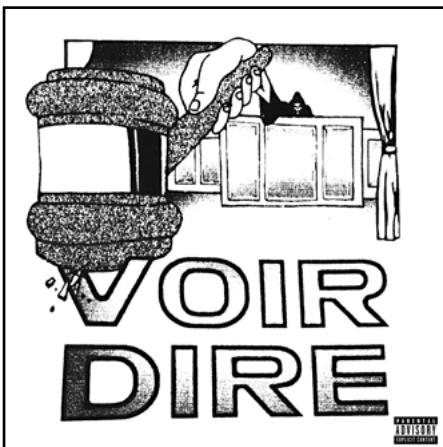
재밌다

Featured

by Editor ikidkekwi

시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활동에 가장 큰 관여를 하고 있는 감각이다. 인간이 하루 평균 보고 기억하는 이미지는 1만 개가 넘는다. 즉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목격하는 모든 이미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음악 감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분명 이는 청각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각 또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음악을 감상하는 순간의 배경일 수도, 무심코 바라본 하늘의 색깔일 수도, 혹은 옆에 앉아 함께 음악을 듣는 누군가의 실루엣일지도 모른다.

이미지는 음악을 듣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앨범 커버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이다. 아티스트의 의도가 담겨있는 앨범커버는 앨범에 대한 감상을 압축시켜 청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음악에 대한 감상보다도,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상 깊은 앨범 커버와 그 음악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려 한다.



Earl Sweatshirts - <VOIR DIRE>

여백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위험하다. 화면에 배치되는 구성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거나 작은 요소들만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지 못한다면, 공허하고 재미없는 디자인이 되고 만다. 흑백 역시 마찬가지다. 컬러풀한 디자인은 누가 봐도 한 눈에 시선을 휘어잡을 수 있지만, 흑백의 경우 특유의 묵직한 질감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꽤나 단조롭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 <VOIR DIRE>는 훌륭한 배치와 시선의 흐름, 그리고 적절한 이펙트로 효과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냈다. 시선은 전면부에 배치된 “배심원 선정”이라는 뜻의 VOIR DIRE의 텍스트와 바로 위에 그 글자를 내려치고 있는 판사봉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막대를 따라 시선은 사신처럼 표현된 배심원 혹은 판사의 이미지에 도착한다. 그 모든 이동에 촘촘히 얹혀있는 빈티지하고 그런지한 텍스쳐는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시킨다.



Daniel Caesar - <NEVER ENOUGH>

다니엘 시저의 <NEVER ENOUGH>, 너무나도 유명한 이 앨범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의 음악으로부터 어떠한 이미지와 심상을 떠올릴까? 이 앨범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라면, 그 중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단어 사이 “새벽”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아트워크로 직결된다. 먼지가 잔뜩 낀 것 같은 빈티지한 텍스쳐감 아래, 검은 숲과 바다보다도 더 푸른 하늘. 그 중앙에서 흰 셔츠를 입고 달리고 있는 이 이미지는 그야말로 <NEVER ENOUGH> 그 자체이다. 선명하고 고화질의 이미지가 언제나 최고의 답안지인 것은 아니다. 형태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뭉개진 포착물 사이, 푸른 흰색으로 빛나는 셔츠가 가져다주는 인상보다 더 이 앨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신선하다



A\$AP Rocky - <Same Problems?>

재밌다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대충 찍은 파파라치 컷도 화보가 되는 A\$AP Rocky가 등장하는 앨범아트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화면 중앙의 남성이 성조기를 걸친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의 또 다른 앨범인 <LONG.LIVE.A\$AP>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검은 배경 속 오래된 티비 스크린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성조기를 걸친 채 흰 복면을 쓰고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SAME PROBLEMS? 라는 거대한 텍스트. 화면의 전반은 두드러지는 여백 없이 가득 채워져있지만 어딘가 텅 비어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비율을 전부 무너뜨리면서 화면에 채워진 텍스트들은 이미지가 가진 힘을 극대화시킨다.



Tyler, The Creator - <IGOR>

종이로 대충 오려 붙인 것 같은 Tyler의 얼굴, 옅은 채도의 분홍색 배경. 특히 멀리서 바라본다면 검은색과 분홍색만이 보일 정도로 유독 어둡게 표현된 그의 얼굴이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앨범커버는 IGOR의 정체성이다. 멜랑꼴리하고 부드러운 멜로디 위 때로는 가볍게, 멜로디컬하게, 또 거칠게, 격렬하게 내지르는 그의 음악이 앨범 커버 위에도 그대로 표현되는 듯 하다. 검은색과 분홍색이라는, 잘 어울리면서 또 동시에 상반된 두 가지의 색상은 어쩌면 사랑을 노래하는 괴물 IGOR에 가장 어울리는 조합일지도 모르겠다.



070 Shake - <Modus Vivendi>

평소 사이버펑크, 레트로 퓨처리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070 shake의 이 앨범 커버를 보고 단박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인물은 바로 Hajime Sorayama이다.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특유의 광택과 금속 질감에서 느껴지는 레트로함으로 구성된 가이노이드 작업물들로 너무나 유명한 그의 향기를 <Modus Vivendi>에서도 그대로 맡을 수 있다. 화면의 우측 뒤로 살짝 비치는 오렌지색의 칠은 커버의 중심인 사이보그의 금속에 감도는 푸른색과 자연스러운 대비를 이루어 역설적이게도 안정감을 극대화한다. 금속 질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가움과 그 위를 감싸는 따뜻한 오렌지색 빛의 오묘한 조화는 어딘가 070 shake의 목소리를 연상케 한다. 이미지 속 방향을 알 수 없는 오묘한 시선까지도 말이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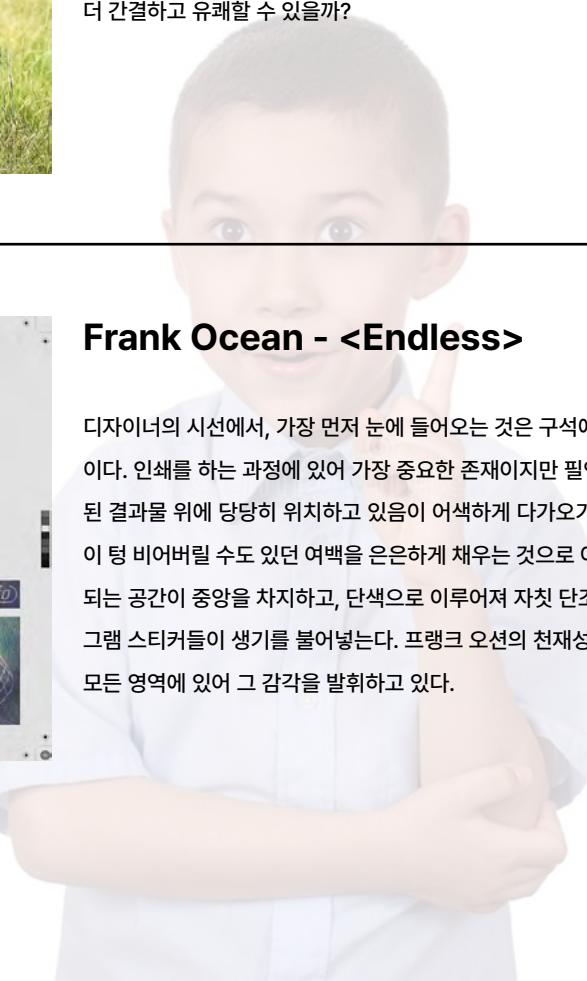
Thundercat & Tame Impala - <No More Lies>

미학적으로 우수하고 화려한 효과들이 사용되어야만 꼭 좋은 디자인은 아니다. 때로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다른 어떠한 이미지보다 더 효과적으로 심상을 전달할 수도 있다. Thunder'cat'과 Tame 'Impala'의 합작싱글 <No More Lies>가 그 좋은 예이다. 다소 찌질하게 느껴지는 가사와 그에 어울리는 것 같은 하찮은 앨범 커버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선택지이다. 치타(Cat)를 뒤쫓는 임팔라(Impala)의 이미지라니! 이보다 더 간결하고 유쾌할 수 있을까?



Frank Ocean - <Endless>

디자이너의 시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구석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재단 선과 익숙한 아이콘들이다. 인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이지만 필연적으로 절려나가는 요소들이 그대로 살아 완성된 결과물 위에 당당히 위치하고 있음이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버려지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그래픽들이 텅 비어버릴 수도 있던 여백을 은은하게 채우는 것으로 이 비주얼 앨범은 시작된다.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중앙을 차지하고, 단색으로 이루어져 자칫 단조로워질 뻔한 전체의 색감은 하단에 위치한 홀로그램 스티커들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프랭크 오션의 천재성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 그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EDITORS' PICKS



KHL



Alfa Mist
<Structuralism>



samlrc
<A Lonely Sinner>



TRACKS

1. .44 / 2. Falling (Feat. Kaya Thomas-Dyke) / 3. Mulago / 4. Glad I Lived / 5. Jjajja's Screen / 6. Naiyti / 7. Retainer / 8. Door (Feat. Jordan Rakei)

by Editor Futura Aisle

TRACKS

1. Lamb Theme / 2. Philautia / 3. Sinner / 4. Flowerfields / 5. Storge / 6. Sheep Theme / 7. For M. / 8. The Beauty of the Present Moment

by Editor 자카

프로듀서 알파 미스트(Alfa Mist)가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은 넓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재즈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지않는다는 점이며, 마지막은 정말 '제대로' 스윙하려 한다는 부분이다. 그는 이 공식을 거의 강박적으로 지켜왔다. 10년에 가까운 무명 생활 동안 그 어떤 음악적 변화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지 명쾌히 엿볼 수 있는 단서다. 2번째 앨범 <Structuralism>에서는 아예 정교한 세션 밴드를 거느리고 돌아왔고, 이는 그가 프로듀서에서 재즈 연주자로 완전히 넘어온 분기점 정도로 해석된다. 미약했던 힙합의 색채는 하강하고, 번잡한 스윙의 열기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미래 세계의 드크 엘링턴이 되고 싶은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드럼의 비중을 늘려 '멜로우 비트'로써의 재즈를 수행하는 알파 미스트의 모습은 지망생보단 실험가에 가까워보인다. 호기심에 차 신기한 물건들을 전부 만져보는 아이처럼, 그는 그저 삽입한다. 관현악과 가상악기를 포함한—최소 스무 개 이상의 인스트루멘탈이 잠깐씩 등장했다. 사라지는 헤비 싱글 '.44'가 대표적이다. <Structuralism>의 테마는 치밀함보단 감각적 즉흥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바로 그 점에서 알파 미스트는 재즈 아티스트다. 따라서 미국이 본토의 모든 총아들을 잊었을 때 영국산 서얼이 전하는 장르의 미래는 다음과 같다. 사방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 나는 이 대목에서 재즈의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며 찬란히 부활하는—미래의 눈부신 재즈.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며 포스트 락, 슈게이징, 앰비언트 등 넓은 폭의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던 아티스트 samlrc. 그는 이미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낸지 오래다. 하지만 <A Lonely Sinner>는 왜인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순수하고도 가공되지 않은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프로덕션 퀄리티는 올해 여타 작품과 비교해도 단연 우수하다. 또한 samlrc의 섬세한 감성과 아름답고 전위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본작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만든다.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스케치로 담아낸 듯한 이 앨범은 듣는 이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한다. samlrc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본작으로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 50분의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여정, <A Lonely Sinner>로 한차례 증명을 끝마친 samlrc. 그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Elton John
<Goodbye Yellow Brick Road>



Jason Mraz
<Mr. A-Z>



TRACKS

1. Funeral for a Friend / Love Lies Bleeding / 2. Candle in the Wind / 3. Bennie and the Jets / 4. Goodbye Yellow Brick Road / 5. This Song Has No Title / 6. Grey Seal / 7. Jamaica Jerk-Off / 8. I've Seen That Movie Too / 9. Sweet Painted Lady / 10. The Ballad of Danny Bailey / 11. Dirty Little Girl / 12. All the Girls Love Alice / 13. Your Sister Can't Twist (But She Can Rock 'N Roll) / 14. Saturday Night's Alright for Fighting / 15. Roy Rogers / 16. Social Disease / 17. Harmony

by Editor 앞날

TRACKS

1. Life Is Wonderful / 2. Wordplay / 3. Geek In the Pink / 4. Did You Get My Message? / 5. Mr. Curiosity / 6. Clockwatching / 7. Bella Luna / 8. Plane / 9. O. Lover / 10. Please Don't Tell Her / 11. The Forecast / 12. Song for a Friend

by Editor ryuzimoto

엘튼 존(Elton John)의 <Goodbye Yellow Brick Road>에서 등장하는 '노란 벽돌 길'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길을 이야기한다. 작중에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의미하는 '노란 벽돌 길'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곁에 있다는 것. 사람에게 있어 '노란 벽돌 길'은 정착지에 대한 갈구일 수도 있겠거니와, 어쩌면 회귀의 장소일지도 모를 일이다. 본작의 구성은 화려함을 좇기도, 웅장함을 좇기도 한다. 허나 결론적으로 노란 벽돌 길의 의미처럼 그간 보여주었던 록 밸러드로의 회귀로 귀결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록, 팝, 밸러드의 혼합 위에는 수려하게 펼쳐 놓은 버니(Bernie Taupin)의 가사들이 있었으며, 그를 전 달하는 존의 카리스마 넘치는 음성이 존재했다. 엘튼 존이 그리려고 했던 '노란 벽돌 길'은 순수했던 그의 보컬과 정갈한 로큰롤 사이의 절묘한 조화 안에 담겨 있었으니 말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제이슨 므라즈(Jason Mraz)를 떠올려 보라 한다면, 2006년 EBS 스페이스 공감 무대에서 최초로 선보였던 "I'm yours"가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칠 것이다. 이처럼 어쿠스틱 기타와 수수하면서도 잔잔한 사운드 등이 제이슨 므라즈를 대표하는 키워드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이는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2집 <Mr. A-Z>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기인 어쿠스틱 팝 혹은 물론, 지-펑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Geek In The Pink", 넘실대는 라틴리듬의 "Bella Lune", 오페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Mr. Curiosity" 등 서로 상이한 장르들을 인간 제이슨 므라즈라는 테마 아래 하나로 묶어냈다. A~Z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운더리안에 담아낸 <Mr. A-Z>는 매 순간마다 흥미로운 호기심을 갖게한다.



TRACKS

1. Army of Me / 2. Hyper-Ballad / 3. Modern Things / 4. It's Oh So Quiet / 5. Enjoy / 6. You've Been Flirting Again / 7. Isobel / 8. Possibly Maybe / 9. I Miss You / 10. Cover Me / 11. Headphones

by Editor 예리

미장 아빔(mise en abyme). 마주보는 두 반사경의 상(像)이 서로 중첩되거나, 작품에 작품을 겹쳐놓는 예술 기법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다. 단어를 담아둔 채 작은 손전등만이 주어진 Björk의 암실에 다녀오자. 왼편에는 Sugarcubes 활동과 <Debut>, 그리고 오른편에는 <Homogenic>과 <Vespertine>를 비롯한 25년간의 작품들이 나열되어있다. <Post>의 발매 전후 시기를 기점으로 한 이 경계면에 어느 양면 거울을 끼워넣어보자. 프리즘을 빙자한 <Post>는 오색찬란한 광채들을 모두 한 몸에 머금는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Björk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그녀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할지언정 그 결실을 빛어낸 발자국들은 제각기 변화무쌍하다. <Debut>으로부터 더욱 다채로워진 "Army of Me", "Bachelorette"조차 넘지 못한 벽 "Hyper-Ballad", <Vespertine>의 향취가 엿보이는 "Cover Me", 헷날의 <Vulnicura> 및 <Utopia> 등으로 확장된 "You've Been Flirting Again"까지. <Post>는 직접 헷날을 예견하며, 또한 기억을 끌어안은 Björk의 집약이다.

TRACKS

1. HOW TO SELF DESTRUCT* / 2. SEX APPEAL / 3. PINK STARZ / 4. JOY / 5. REJECT MEDIA / 6. CYBERKISS 2 U* / 7. NYUYORK V2* / 8. BOYCOTT / 9. STAR CROSSED KIWI FUSION* / 10. DO THE RIGHT THING / 11. KEEP ME AROUND / 12. DIGITAL WORLD / 13. EXPRESS YOURSELF / 14. PEACH COBBLER / 15. CARDIGAN / 16. 1-800-BLACKSTARKIDS / 17. PEACE + LOVE

by Editor 공ZA

음악과는 크게 맞닿지 않은 미국의 도시 캔자스시티에서 나고 자란 세 명의 아티스트. 이들은 블랙스타키즈(BLACKSTARKIDS)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그들만의 세계를 펼치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CYBERKISS*>는 현실과 하나의 디지털 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콘셉트의 앨범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음악을 통해 청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자신 있게 그들의 세상으로 듣는 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멤버들의 표현 방식의 조화가 훌륭하다는 점이다. 귀여운 사촌 동생 같은 비쥬얼의 소유자 TheBabeGabe의 랩과 싱잉을 비롯하여 Deiondre의 유려한 음색의 보컬, TyFaizon의 무심한 듯 정교한 래핑은 블랙스타키즈가 흩뿌린 다양한 장르의 멤버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각각의 트랙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앨범의 콘셉트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아웃트로 또한 인상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블랙스타키즈의 별 모래와도 같은 반짝임. 중구난방을 그들만의 개성으로 치환하는 건 설득력 있는 음악성이다.

Recently Released

자카, 공ZA, SongChico, 앞날

Featured

Futura Aisle, SongChico, ikidkekwi

Full-Length Album Review

온암, 자카, 예리

Classic Album Review

온암, ryuzimoto

Editors' Picks

Futura Aisle, 자카, 앞날, ryuzimoto, 예리,
공ZA

Design

ikidkekwi

NEW!

@hausofmatters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에디터들의 자체 제작 컨텐츠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NEW!

HAUS OF MATTERS 매거진 공식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End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